

번역문체의 역사적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머리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번역에 나타나는 국어 오용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번역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서, 이번에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번역 문체의 역사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가 국어 번역문의 오늘날 상황을 짚어본 작업이라면, 이번에 내는 보고서는 그러한 상황의 뿌리를 캐어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현대의 번역문이 갖고 있는 특성의 근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실로 적잖은 소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의 실마리를 밝혀내는 작업은 그 잘못에 대한 치유의 과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번역은 조선 시대의 언해류에서 비롯된 한문 번역투의 말들이 자취를 감춘 것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일 정도로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역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므로 잘못된 번역이 우리의 국어 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 온 것도 그 뿌리가 자못 깊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오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문투의 영향 말고도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흔히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은 큰 나라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날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외래적 요소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한번쯤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는 서구 문화에 처음으로 접했던 1920

년대와 1930년대의 국어 번역문의 실체가 어떠하며, 그것이 우리의 현재 언어 생활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 보고서가 번역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올바른 번역 문화 창달과 국민의 언어 생활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번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뜻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6월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안병희

일러두기

본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선택한 자료와 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당시의 언어 생활과 문화 전반을 알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주로 검토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2.3과 2.7의 두 편은 희곡이다.

(마지막에 괄호로 묶은 것은 출전을 간단히 표시한 약호이다.)

(1) 1920년대

- 1.1.<相逢> 포우 작, 김명순 역, 개벽 29호. 1922.10. (상)
- 1.2.<黑猫物語> 포우 작, 역자 미상, 시대일보, 1925.12.26-31. (후)
- 1.3.<月子와 時計> 오헨리 작, 윤백남 역, 동아일보, 1926.1.9-14. (월)
- 1.4.<赤死의 假面> 알란 포우 작, 정인섭 역, 해외문학 1:1. 1927.2.17. (적)
- 1.5.<20年後> 오헨리 작, 이일소 역, 사조 1:1, 1927.12.1. (20)
- 1.6.<百萬磅 紙幣>(2회) 마-쿠-투-에-니 작, 이기영 역, 조선지광 77:78,
1928.3.1.-5.1. (백)
- 1.7.<奴隸들> 스토우 부인 작, 중외일보, 남궁량 역, 1928.11.25-29. (노)
- 1.8.<빵장사 마루사> 오헨리 작, 土偶 역, 학생 1:2, 1929.4.1. (토)
- 1.9.<小人國 旅行記> 스위프트 작, 이은상 역, 신생 3:8-22, 1930.7.1. (소)

(2) 1930년대

- 2.1.<하룻밤>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 작, 이하운 역, 조선일보,
1931.5.22-6.6. (하)
- 2.2.<新譯西遊記> 동유생 작, 양백화 역, 중외일보, 1931.5.4.-6.13. (신)
- 2.3.<楊貴妃> 왕독청 작, 양백화 역, 조선일보, 1931.5.16-6.13. (양)

- 2.4.<하박사의 실험> 호손 작, 이하윤 역, 조선일보, 1931.6.7-16. (하박)
- 2.5.<屠殺者> 헤밍웨이 작, 夢甫 역, 동아일보, 1931.7.19-31. (도)
- 2.6.<비밀없는 스프링크스> 오스카 와일드 작, 이하윤 역, 조선일보,
1931.8.15-21. (비)
- 2.7.<곰> 안톤 체홉 작, 함대훈 역, 조선일보, 1931.8.15-18. (곰)
- 2.8.<下宿屋> 제임스 조이스 작, 최정우 역, 문예월간 2:2, 1932.3.1. (하숙)
- 2.9.<巡査와 讚美歌> 오헨리 작, 장영숙 역, 신동아 5:1, 1935.1.1. (순)
- 2.10.<로빈슨 무인절도 표류기>(3) 디포 작, 역자 미상, 한글 3:2-12,
1935.2.1. (로)

(*표기는 언어 자료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충실히 원문을 따랐다. 단 띄어쓰기는 분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대의 어법에 따랐다. 현대 국어와 어형이 심하게 다른 것은 해당 단어 다음에 그 뜻을 괄호로 묶어 표시했다. 그리고 된소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ㅅ계 합용병서는 편의상 같은 자형의 겹침꼴로 대신했다.)

번역 문체의 역사적 연구

목차

머리말	1
일러두기	3
제1장 들어가기	7
제2장 문체 분석	9
I. 통사적 양상	9
II. 어휘 사용의 양상	69
III. 표기 체계	97
IV. 문장 부호	103

제1장 들어가기

원천언어의 본문을 이와 대등한 목표언어의 본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번역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쪽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의 등가성(等價性)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전달만으로 자신의 모든 기능을 완수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 기능을 위주로 하는 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 작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능히 짐작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의미의 등가성 못지 않게 문체의 중요성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한 성경 번역자인 동시에 언어학자인 나이다(E. Nida)도 다음과 같이 번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은 의미, 그 다음 문체에 대응하는 가장 가까운 자연스런 동등함을 재현하는 것이다.”(*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p.85,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75; 유명난(1991, <번역이란 무엇인가>:10)에서 재인용)

문체는 언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목표언어와 원천언어가 다른 구조를 가질 때, 양쪽 언어 사이의 문체적 변용은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번역자는 대체로 번역에 앞서 자신이 번역한 결과물을 누가 보게 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자신이 다룰 해당 외국어에 대한 지식의 깊이라든가, 목표언어에 대한 이해력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해당 작품에 대한 순수한 흥미를 가진 일반적인 집단이 주된 독자층이라면 독서의 수고를 최대한 덜어 주고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번역 과정을 조직하여 작업을 진행시킬 것이다. 이처럼 보통의 언중을 포함하는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읽힘성’(readability)이 관건이 되므로 번역자는 목표언어의 구사에 한층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의 좋은 번역은 원천언어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아울러 목표언어를 통한 ‘표현의 과정’까지 포함한 개념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문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구 문화에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번역 문학 작품에 대해서 그 문체의 전반적인 양상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이 조사는 당대의 번역 문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현대의 번역 문체가 가진 그 특성의 뿌리를 찾고 변천의 과정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잘못된 번역으로 우리의 국어 생활이 적잖은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잘못의 단초를 밝히는 작업은 그 치유의 과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번역 문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구문과 어휘가 주된 영역이 되고 다음으로 부호와 표기 양상 등의 문제도 부분적인 관심의 영역이 될 것이다.

제2장 문체 분석

본장에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번역문의 문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통사적 양상과 어휘 사용 양상, 표기 체계 및 문장 부호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 ‘통사적 양상’이란 술어는 문장 단위와 아울러 문장보다 작은 단위인 형태 및 형태의 연결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한다.)

I. 통사적 양상

통사적 양상의 관찰 대상으로 주목하는 분야는 문장과 접속 표현, 대명사, 시제, 화법, 경어법, 수동문의 번역 등 14개 항목에 이르는 통사론 전반이 될 것이다. 아래에 항 항목씩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예문을 제시하고 다음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며, 가능하면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번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문장

전체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현대 국어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 이전 시대의 국어 문장이 비교적 길었다는 점과 국어보다 긴 원문의 기계적인 직역이 그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어느 언어든 대체로 시대를 지나면서 문장의 호흡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인구어는 특

히 문장 부호를 통해서 여러 문장이 연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그것은 품행이나 문벌이나 말할 것도 없는 한 외국인이 한 사람의 친구도 없는 이 「론돈」에 떠드러왔다고 가정해 노코 레의 「백만방」(일천만원)의 지전 한 장밖게는 한 푼도 업고 또 그것의 소유권을 설명할 길도 업다 하면 그 남자의 운명이 엇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형은 그 사람은 굶어 죽으리라 말하고 아오는 죽지 안는다는 것이었다. (백:114쪽)

한 문장에 50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 있어서 문장의 길이가 대단히 길어져 있다. 그러한 결과로 적절히 문장을 절단시켜 주지 못해서 전체적인 의미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절단해 주려면 다음과 같이 전반부를 자유간접화법 형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을 것이다.

(1.cf) 사연은 이러했다. 우선 품행이나 문벌이나 말할 것도 없는 한 외국인이 친구 하나 없는 이 런던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예의 그 백만방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고 그 지폐의 소유권을 설명할 길도 막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남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기의 전말이었다. 여기서 형은 그 사람이 굶어 죽으리라고 말하고, 아우는 죽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2)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평판을 받은 백만 파운드짜리 지전 한 장밖게는 동전 한 푼도 업고 그 백만방이라는 것도 실상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한층 목소리를 나죽히 하여 출발 이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들녀 준다. (백:2-81쪽)

위 (2)의 문장도 현대 문장보다 길이가 길다. 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적당한 길이로 절단해서 옮겨 본다.

(2.cf)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평판을 받던 백만 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고 그 백만 파운드라는 것도 실상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나서 한층 목소리를 낮추어서 출발 이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들려 주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장 작법상의 초보적인 문제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장의 길이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로 국어 문장보다 긴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한 데서 연유한 결과이다.

(3)그러나 殊常스러운 일은 그의 朗朗한 光彩를 가진 큰 눈이 그의 가장 귀한 希望을 무든 水面에 향해지지 안코 아주 저편에 牢獄의 벽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상:27쪽)

위 (3)에서 주어는 '일'이고 서술어는 '바라보고 있었다'로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잘 안 되고 있다. 주어를 술어에 맞추든지 술어를 주어에 맞추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문장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

(3.cf)그러나 殊常스러운 일은 그의 朗朗한 光彩를 가진 큰 눈이 그의 가장 귀한 希望을 무든 水面을 향하지 않고 아주 저편에 牢獄의 벽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의 예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문과 번역문만 제시한다.

(4)또한 저는 어떤 句節을 떼어서 이약이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였는지 아조 이저 버린 듯이 손님이 차자오기를, 或은 저의 想像 가운데만 存在한 무슨 소리를 期待하는 것가티 注意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상:32쪽)

호응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현대역은 다음과 같다.

(4.cf)또한 그는 어떤 句節을 떼어서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였는지 아주 잊어 버린 듯이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무슨 소리를 期待하는 것 같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거나 했다.

(5)이 詩가 英吉利語로 쓰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저는 모든 獲得한 能力 중에서 그 中 秘密 가지기를 特異한 快樂으로 아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상:33쪽)

위 (5)의 문장도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주제를 표시하는 조사 '는/은'이 남발되고 있어서 의미 파악이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5.cf)이 詩가 영어로 쓰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획득한 모든 능력 중에서 秘密 가지기를 특이한 快樂으로 여기고 있음에서 알 수 있었다.

(6)지금까지 잇든지 엮든지도 모르는 일개 청년의 하루 아침에 그 입에

서 나오는 말은 도처에서 되풀이한다. (백:123쪽)

조사의 용법과 호응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될 것이다.

(6.cf)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일개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루 아침에 도처에서 되풀이되었다.

2. 접속 표현

번역에서 접속 표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어떤 언어든 일차적으로 접속 표현이 문맥의 논리적 연결성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접속 표현을 담당하는 문법 범주는 언어에 따라서 대체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번역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접속어가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원문이 담고 있는 긴장감과 속도감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작품의 장르에 무관하게 설명적인 번역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단편 소설과 같이 문장의 호흡을 중시하는 원문의 번역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양상은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

(7)--그대가 現在 있는 것 갖지는 안코, 이를테면 悽涼한 谿間과 그림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대가 잊섯을 듯한, 卽 저 몽롱한 幻影의 市--별의 사랑을 받는 極樂 아라지오식 宮殿의 넓은 門窓들이 沈默하는 바다의 이상한 모든 秘密의 우에, 또 그대가, 김흔, 쓴 意味의 눈끼를(눈길을) 던지고 잇든 그대 自身の 베니스에서, 莊嚴한 冥想

의 生涯를 보내고 잇든 그대의 모양이! (상:25쪽)

위 (7)에서는 한 문장 안에 접속어가 무려 3개나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적 태도를 (원문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독자에 대한 배려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속 표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글 전체의 내용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접속어를 적당히 생략하여 다시 써 보면 아래와 같다.

(7.cf)--그대가 現在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어찌면 悽涼한 谿間과 그림자 가운데가 아니라, 그대가 있었을 듯한 저 몽롱한 幻影의 市--별의 사랑을 받는 極樂 아라지오式 宮殿의 넓은 門窓들이 沈黙하는 바다의 이상한 모든 秘密을 안고 그대가 깊고 쓴 意味의 눈길을 던지고 있던 그대 自身の 베니스에서, 莊嚴한 冥想의 生涯를 보내고 있던...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잉여적인 접속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표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생략되어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읽힌다.

(8)저 舊共和國의 牢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니스에서 가장 壯大한 建築이나, 그러나 어찌하여 이 貴婦人은 그 발 알에 그의 외아들이 숨막혀질 때 것처럼 牢獄의 壁만 凝視할 수 잇섯슬가? (상:27쪽)

위 (8)의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역접의 접속 표현으로 어미 '이나'와 접속 부사 '그러나'가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두 가지 표현이 동일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역접을 나타내는 활용 어미로 충분하다. 대체로 원문이 실용 서적이 아니라면 접속부사를 가능한 한 피하고 어미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부사를 생략하고 다시 쓰면 다음과 같

은 정도가 될 것이다.

(8.cf)저 舊共和國의 牢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니스에서 가장 壯大한 建築인데(이지만) 어찌하여 이 貴婦人은 그 발 아래 그의 외아들이 숨이 막힐 때 것처럼 牢獄의 壁만 凝視할 수 있었을까?

또한 아래 (9)처럼 접속어 대신 문장 부호로 대치해도 충분히 접속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예문도 보인다.

(9)누구든지 지금가튼 때는 그 눈이 깨진 거울가티 그 비탄을 몇 層倍數로 비치어내서 동떨어진 이곳저곳에 亶 손 아래 잇는 悲嘆이 번지어 보인다는 일을 斟酌할 것이다. (상:27쪽)

(9.cf)누구든지 지금같은 때는 그 눈이 깨진 거울같이 그 悲嘆을 몇 倍數로 비추어 내서 동떨어진 이곳저곳, 손 아래 잇는 悲嘆이 번져 보인다는 일을 斟酌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모두 잉여적 접속 표현이 나타난 것들이다. 자연스러운 번역과 함께 별도의 설명은 가하지 않고 예문과 번역문만 차례로 제시하기로 한다.

(10)이 狀態와 및 저의 疲憊한 容子로부터 나는 저가 前夜에 죽음도 就眠치 못함을 判斷하였다. (상:30쪽)

(10.cf)이 狀態와 저의 疲憊한 容子로부터 나는 저가 前夜에 조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11)官能은 친친 둘러서 습하는 營香숨에서 소사올라 互混相關하는 香氣와 그리고 紅과 黃色과의 물이 무수하게 반짝반짝하는 불꽃에 壓迫을 바닷다. (상:30쪽)

(11.cf)官能은, 친친 둘러서 습하는 營香숨에서 솟아올라 서로 섞이는 香氣와 아울러, 紅色과 黃色이 비친 물이 (보여 주는) 무수히 반짝이는 불꽃으로 인하여 압력(자극)을 받았다.

(12)君은 나와 및 나의 僕 以外에, 이 神聖한 奧院에 들어오라는 許諾을 바든 唯一의 人間이다. (상:31쪽)

(12.cf)君은 나와 나의 從僕 이외에 이 神聖한 奧院에 들어오라는 許諾을 받은 唯一한 人間이다.

(13)場所와 또 時代의 規矩는 莊麗한 것을 考想해 보는 것에서 人類를 恐怖시키는 暗鬼이다. (상:35쪽)

(13.cf)場所와 時代의 規矩는 莊麗한 것을 考察해 보는 일에서 人類를 겁먹게 하는 暗鬼이다.

(14)그럴 동안에 슬퍼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적:46쪽)

(14.cf)그럴 동안에 슬퍼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15)그것은 품행이나 문벌이나 말할 것도 업는 한 외국인이 한 사람의 친구도 업는 이 「론돈」에 떠드러왔다고 가정해 노코 레의 「백만방」(일천만원)의 지전 한 장밋게는 한 푼도 업고 또 그것의 소유권을 설명할 길도 업다 하면 그 남자의 운명이 엇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형은 그 사람은 굶어 죽으리라 말하고 아오는 죽지 안는다는 것이었다. (백:114쪽)

(15.cf)그것은 품행이나 문벌이나 말할 것도 업는 한 외국인이 한 사람의 친구도 업는 이 「론돈」에 떠드러왔다고 가정해 노코 레의 「백만방」(일천만원)의 지전 지전 한 장밖에는 업는 데다가 그것의 소유권을 설명할 길도 업다 하면 그 남자의 운명이 엇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형은 그 사람은 굶어 죽으리라 말하고 아오는 죽지 안는다는 것이었다.

(16)또 만일 내가 이 지전을 엇던 은행에 예금하든지 혹은 던당국(전당포)에 맞기더라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백:118쪽)

(16.cf)또 만일 내가 이 지전을 어떤 은행에 예금하든지 전당포에 맡기든지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17)인제 綠山이는 이 여러 忠臣 名將에게 亡하고 그리고 그 몸둥이는 發破가 되어 몹시 죽을는지 모른다. (양)

(17.cf)이제 綠山이는 이 여러 忠臣 名將에게 죽고 그 몸뚱이도 ...

(18)그러나 하숙 사람들이 그 사건을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도 그래도 무네 부인은 간섭하지를 안았다. (하:68쪽)

(18.cf)그러나 하숙 사람들이 그 사건을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도 무네 부인은 간섭하지를 았았다.

(19)더러는 열결에 그 바위 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나와 및 오륙인은 短艇을 내리워 타고 괴를 써 그곳을 벗어나왔습니다. (소:37쪽)

(19.cf)더러는 열결에 그 바위 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나와 오륙인은 短艇을 내리워 타고 기를 써서 그곳을 벗어나왔습니다.

(20)도중에서 여러 번 폭풍을 만났으나, 그러나 파선할 지경은 한번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29쪽)

(20.cf)도중에서 여러 번 폭풍을 만났으나 파선할 지경은 한번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다음 (21)의 밑줄 그은 부분에 나오는 접속어는 읽기에 부담이 되는 위와 같은 잉여적 표현과 달리 독자의 주의를 주인공 쏘피 쪽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당히 세련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21)기러기 밤하늘 높이 울고 수달피 외투를 못 가진 안락들이 남편한테 상랑해질 때 그리고 쏘피가 공원 벤취 우에서 불안을 느낄 때 겨울은 닥쳐온 것이다. (순:259쪽)

3. 대명사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기계적 번역으로 인한 대명사의 과도한 사용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번역이 서구의 언어에 대한 비교적 초창기의 접근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명사 남용 현상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도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22) 누가 그대를 그대가 밤낮 보는 幻影으로 해서 非難할 것인가?
(상:25쪽)

위 (22)의 밑줄 그은 2개의 인칭대명사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생략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22.cf) 밤낮으로 幻影을 본다고 해서 누가 그대를 非難할 것인가?

다음의 예문은 모두 이러한 대명사의 남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대명사의 적절한 생략이 문장 전체의 유기적 연결에 기여하여 오히려 읽기에 도움을 줄 것이다.

(23) 그의 작은 댄발은 銀가티 검은 大理石 한가운데 빛나고 그의 頭髮은 舞蹈하듯 머리대로 좀 끌려져서 金剛石의 이슬 가운데 젊은 히야신스의 꽃가티 푹을푹을하게 古典的인 그 머리 우에 묶기어 있다. (상:27쪽)

(24) 그러나 공작부인은 그 손으로 그의 小兒를 바다서 꼭 안을 듯한데 어떠한 理由인지 다른 사람의 팔이 그 알지 못하는 젊은이의 손에

서 小兒를 바다서 어느듯 높은 궁전 안으로 가져갔다. (상:28쪽)

위 (23)과 (24)에서는 한 문장에 대명사 ‘그’가 무려 3번이나 쓰이고 있다. (하나는 관형사임) 적어도 2개의 ‘그’는 사용이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시해 본다.

(23.cf)그의 작은 맨발은 銀가티 검은 大理石 한가운데 빛나고 頭髮은 舞蹈하던 머리대로 좀 끌려져서 金剛石의 이슬 가운데 젊은 히야신스의 끝같이 꼬불꼬불하게 古典的인 머리 위에 묶여 있다.

(24.cf)그러나 공작부인은 손으로 그의 小兒를 바다서 꼭 안을 듯한데 어떠한 理由인지 다른 사람의 팔이 그 알지 못하는 젊은이의 손에서 小兒를 받아서 어느듯 높은 궁전 안으로 가져갔다.

(25)누구든지 지금가튼 때는 그 눈이 깨진 거울가티 그 비탄을 몇 層倍數로 비치어내서 동떨어진 이곳저곳에 卽 손 알에 잇는 悲嘆이 번지어 보인다는 일을 斟酌할 것이다. (상:27쪽)

위 (25)의 관형사 ‘그’는 불필요한 용법이다. 원문의 정관사 the가 기계적으로 관형사로 번역되어 있다.

(26)무슨 理由가 거기 잇섯는지 그가 급히 저에게 作別을 곱할 때 그의 입에서 뜻없는 듯한 속새긴지 그러치 안흐면 물결의 속새긴지 異狀한 低音의 말소리가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해가 올라와서 한 時間 後에 -- 우리는 만납시다--그럼시다!> 속새기는 것을 나는 其然가 未然가 하게 들엇다. (상:28쪽)

위 (26)에 나타난 장소 지시 대명사 '거기' 역시 불필요한 번역이다. 원문의 유도 부사 'there'에 이끌린 직역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아래의 (27)을 보면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영어 원문의 비인칭 주어 'it'까지 번역문에서 대명사 '그'로 번역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7)그는 尋常치 안흔 暗鬱한 밤이었다. (상:26쪽)

여기서 '그'로 번역된 형식주어 it는 국어 표현에서는 차라리 없애면 좋을 것이다.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인칭대명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28)검은 石段 우에는 그를 한번 보면 永久히 잊지 못할만한 사람의 影子가 서있다. (상:26쪽)

동사 '보면'의 목적어구 '그를' 전체가 불필요한 번역이다.

(29)그들의 침중한 태도와 장갑 낀 손에 들은 조곰한 책은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가땃다. (하:68쪽)

인칭 대명사 둘 중의 하나는 불필요하다.

(30)나는 곳 여기로 가져올테야요. 내가 총으로 쏘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곰)

위 (30)의 원문은 희곡이다. 그러므로 대사를 읽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대사 가운데 인칭대명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여 직역투의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3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의 문제이다. 현대 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남성을 가리키는 ‘그’와 여성을 가리키는 ‘그녀’, 그리고 중성인 ‘그것’으로 정립되어 있지만, 이 시기의 3인칭 대명사는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우선 다음 (31)의 대명사를 보자.

(31)그는 그대의 限업는 精力이 드넘친 데 지나지 안흔 일이 아닌가!
(상:25쪽)

위 (31)의 예문에 나타난 대명사는 뒷부분인 서술어로 미루어 볼 때, 중성 대명사인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31.cf)그것은 그대의 限업는 精力이 드넘친 데 지나지 안흔 일이 아닌가!

다시 아래의 예문 (32)를 보면 특이한 어형의 3인칭 대명사가 나타나고 있다.

(32)저는 이때 기다라를 글거올리면서 때때로 생각나는 듯이 速히 전의 小兒를 차저내도록 命을 傳하나 이때 저는 죽지 안흐리만큼 厭症을 깨닷는 듯이 보엿다. (상:27쪽)

위의 예문 (32)에서 보이는 ‘저’라는 형태는 ‘그 사람’이라는 뜻의 3인칭 대

명사인데 조금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같은 작품의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문맥에서 ‘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어형이 3인칭 대명사임은 분명하다. (단 두번째 것은 재귀대명사 ‘자기’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지금도 이러한 ‘저’가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문들도 모두 3인칭 대명사 ‘저’를 보여 주고 있다.

(33)그 刹那 後에 저는 아주 살아서 숨쉬는 小兒를 꼭 붓안고 대공작 부인 옆해 첫술 때 물이 흠뻑 저저서 묵어운 저의 外套가 허부렁하게 끌려저서 저의 발 앞에 뭉키었다. (상:28쪽)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3인칭 대명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34)그이는 色彩와 의장에 대해서 레민한 시력을 가지고 잇섯다.
(적:48쪽)

위 (34)의 대명사 ‘그이’는 문맥상 남성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이다. 그런데 아래 예문 (35)-(38)을 보면 이 대명사가 남성과 여성에 공히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5)나는 허스츠 부인이 야합니다. 그이는 이 집 주인입니다. (도)

(36)그는 남에게 속을 주지도 안코도 녀넉히 견딜 수 잇는 녀자이엇다.(하:66쪽)

(37)녀자의 말을 되푸리하야 그는 그 말을 자기 자신에 적용하야 보앗다. (하:71쪽)

(38)그 뒤에 나는 파톤 夫人과 結婚하게 되어 그가 가져온 돈 四千兩을 手中에 너케 되었습니다. (소:37쪽)

위 예문 (34)-(38)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 ‘그이’는 보다 추상적인 인칭대명사인 ‘그’로 가는 과도기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여성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는 ‘그 여자’(또는 ‘그 여자’)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자.

(39)나는 이분 동안에 그 여자에게 련정을 보내고 그 여자도 나를 밍지 안케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백:125쪽)

위 예문 (39)에서는 아직 여성을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 ‘그녀’가 보이지 않고 ‘그 여자’ (‘그 여자’)가 보인다.

(40)그 여자도 가튼 모양으로 대고 지기만 하였다. (백:2-81쪽)

(41)그 여자를 쏘아 버릴테다. (곰)

(42)나의 주의를 관철코저 그 여자를 총으로 쏘는 것이다. (곰)

(43)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신)

위 (40)-(43)의 예문들에서도 역시 3인칭 여성 지칭 대명사로 ‘그 여자’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래의 예문 (44)를 보면 한자어 기원의 3인칭 대명사 '꺄자'(厥者)도 보인다. 이 대명사는 대체로 '그자를 하대'하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44)그란즉 꺄자는 조곰 태도를 고쳐서 그러나 오히려 뺏뺏이 굴면서 이러케 변명한다. (백:120쪽)

다음 예문 (45)의 '저'는 앞서와 달리 겸양의 뜻을 담은 1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45)두 분께 저는 보고하러 왔습니다. (백:2-87쪽)

한편 현대와 동일하게 '제'가 '자기'를 뜻하는 재귀대명사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46)제가 한 말이나 제가 한 일도 나중에 그것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겠다. (양)

(47)이게 어찌된 일인지 제가 생각하고 잇는 걸 말씀하실 수 업스시다네. (도)

4. 시제

이 시기 번역문의 시제 표현은 과거형의 사용으로 어느 정도 사실적이지만 부정 시제나 과거완료형의 존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실성이 일정 부분 손상당하고 있다.

(48)그러케 사람을 잘 죽이는 흉악한 괴질은 이때까지 한번도 업섯다.
(적:45)

위 예문 (48)에서는 과거 시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들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49)거기는 確實히 이 世界와는 달라서 異狀한 思想과 이상한 考察이 존재하다. (상:25쪽)

위 예문 (49)에는 이른바 不定시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어체적 표현은 시제의 사실성을 해치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의 예문 (50)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50)그리고 장침이 시계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시간을 치면 늦쇠로써 만든 시계의 패장에서는 분명하고 높고 깊으며 대단히 음악적인 소리가 들린다. (적:47쪽)

다음으로 눈에 많이 뜨이는 것은 과거완료형의 남발이다. 그대로 과거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동사를 보충해 주면 될 것이다.

(51)먼저도 말했거니와 太陽은 이미 올라왔섯스나 房 안은 오히려 燦爛한 燈火가 키어 잇섯다. (상:30쪽)

위 예문의 과거완료 시제는 아래의 (51.cf)처럼 相 (aspect)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cf)먼저도 말했거니와 太陽은 이미 올라와 있었으나 房 안은 오히려 燦爛한 燈火가 키어 잇섯다.

아래의 예문들에 나타난 과거완료형은 일반적으로 그냥 과거형으로 처리하면 무난하다.

(52)스물일곱살 때 나는 「쌍푸랑씨스코」 어느 금광업 중매인의 차인꾼으로 잇섯는데 주식 취인에 관한 등사에는 미상불 한몫 불만도 하엿섯다. (백:112쪽)

(52.cf)스물일곱살 때 나는 「쌍푸랑씨스코」 어느 금광업 중매인의 차인꾼으로 잇섯는데 주식 취인에 관한 등사에는 미상불 한몫 불만도 하엿다.

(53)이것은 그대로 두고 상복(喪服)을 만들지 안으면 안 되게 되엿섯습니다. (백:121쪽)

(53.cf)이것은 그대로 두고 상복(喪服)을 만들지 안으면 안 되게 되엿습니다.

(54)또 그 뒤에 한 三年 동안이나 和蘭의 레덴이란 곳에서 醫術을 研究한 뒤에 페즈氏의 周旋으로 「제비號」라는 배의 船醫가 되었었는데 船長은 아브라함 바텔이란 海軍 少佐이었습니다. (소:37쪽)

(54.cf)또 그 뒤에 한 三年 동안이나 和蘭의 레덴이란 곳에서 醫術을 研究한 뒤에 페즈氏의 周旋으로 「제비號」라는 배의 船醫가 되었었는데 船長은 아브라함 바텔이란 海軍 少佐이었습니다.

한편 아래의 예문 (55)에 나타나는 과거완료형은 조동사를 첨가하여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55)오후의 립회가 끝나면 반공일은 자유의 몸이었으므로 나는 조고만 뽏트에 돛을 달고 항구 안을 즈어 도라단이는 것이 한 습관이 되었었다. (백:112쪽)

(55.cf)오후의 립회가 끝나면 반공일은 자유의 몸이었으므로 나는 조고만 뽏트에 돛을 달고 항구 안을 즈어 도라단이는 것이 한 습관이 되어 버렸다.

아래의 예문 (56)의 시제는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시제의 표현은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 잘 눈에 띄이지 않는다.

(56)과멸이 오는 때에 그는 어쩌케 해서든지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백:124쪽)

(56.cf)과멸이 을 때에 그는 어쩌케 해서든지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5. 수동태의 번역

이 시기의 번역문에는 특히 수동태를 무리하게 국어의 피동형으로 직역한 문투가 눈에 많이 뜨인다. 초기의 번역문인 점을 감안하면 국어에 없는 수동형의 문장을 국어로 옮기면서 겪었던 당시 번역자들의 고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57)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업시 물 흘러가는 대로 보다 작은 運河를 向
하야 흘러가지 안홀 수 업섯다. (상:26쪽)

(57.cf)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업시 물 흘러가는 대로 보다 작은 運河를
向하야 떠내러가지 안홀 수 업섯다.

(58)저 舊共和國의 牢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니스에서 가장 壯大한
建築이나, 그러나 어찌하야 이 貴婦人은 그 발 알에 그의 외아들이
숨막혀질 때 것처럼 牢獄의 壁만 凝視할 수 잇섯슬가? (상:27쪽)

(58.cf)저 舊共和國의 牢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니스에서 가장 壯大
한 建築이나, 그러나 어찌하야 이 貴婦人은 그 발 알에 그의 외아
들의 숨이 막힐 때 것처럼 牢獄의 壁만 凝視할 수 잇섯슬가?

(59)우리들은 그 전에 잇든 하인에게 인도되어서 그의 두 신사에게로
드러갓다. (백:2-87쪽)

(59.cf)우리들은 그 전에 잇든 하인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두 신사에게
로 드러갓다.

(60)그 지전이 업섯드라면 나는 룬돈에 머무를 수도 업섯슬 것이요 공사판에도 출두할 수 업섯슬 것이요 따라서 그 녀자에게 만나지도 못하엿슬 것이 사실이겟다. (백:2-89쪽)

(60.cf)그 지전이 업섯드라면 나는 룬돈에 머무를 수도 업섯슬 것이요 공사판에도 출두할 수 업섯슬 것이요 따라서 그 녀자를 만나지도 못하엿슬 것이 사실이겟다.

(61)인제 綠山이는 이 여러 忠臣 名將에게 亡하고 그리고 그 몸둥이는 發破가 되어 몹시 죽을는지 모른다. (양)

(61.cf)인제 綠山이는 이 여러 忠臣 名將의 손에 亡하고 그리고 그 몸둥이는 發破가 되어 몹시 죽을는지 모른다.

(62)그리고 그 돈 우에다가 長安을 亡命한 그림을 색여두어 이번의 紀念을 하겟다. (양)

(62.cf)그리고 그 돈 우에다가 長安이 滅亡당한 그림을 색여두어 이번의 紀念을 하겟다.

(63)나는 그 사람이 방속에 꼭 들어안저 죽임을 바들 것을 알아차리고 잇는 것을 생각하면 아조 못 견디겟어. (도)

(63.cf)나는 그 사람이 방속에 꼭 들어안저 죽임을 당할 일을 알아차리고 잇는 것을 생각하면 아조 못 견디겟어.

(64)나도 역시 허욕에 띄워서 여러가지 낭패를 보았습니다. (로:29쪽)

(64.cf)나도 역시 허욕에 들떠서 여러가지 낭패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이는 것은 동일한 형식이 겹친 이중 피동의 표현이다. 이는 현대 국어의 번역문에서도 적잖게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잉여적 표현이다.

(65)모든 努力은 다 헛되어졌다. (상:27쪽)

(65.cf)모든 努力은 다 헛되었다.

(66)그러나 김흔 熱情이 일어나는 瞬間에 저의 軀幹은 實로 增大해서 이 말이 헛되어진다. (상:29쪽)

(66.cf)그러나 김흔 熱情이 일어나는 瞬間에 저의 軀幹은 實로 增大해서 이 말이 소용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

(67)저의 輕快한 爲先 가늘다고 해도 조흔 모양은 제 가만히 위험한 變을 만났을 때 容易히 보이리라고 생각하여지는 저 하-규리-즈의 力量보다도 차라리 먼저 歎息의 다리 앞에서 나타내인 神速한 行動이 만타. (상:29쪽)

(67.cf)저의 輕快한 爲先 가늘다고 해도 조흔 모양은 제 가만히 위험한 變을 만났을 때 容易히 보이리라고 생각되는 저 하-규리-즈의

의 力量보다도 차라리 먼저 歎息의 다리 앞에서 나타내인 神速한 行動이 만타.

6. 명사문의 처리

번역문의 품사는 원문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직역일 때보다 의역일 때 양쪽 언어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원문의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려는 의역은 원문의 질서보다 번역어의 질서를 더욱 존중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지나치게 명사 구문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국어의 조사가 영어의 전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다.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국어의 조사가 앞에 오는 단어의 자리를 나타내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하는 데 비해서, 영어의 전치사는 그 자체에 독자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 시기의 실제 번역문을 자료로 하여 검토해 보자.

(68)나는 運河로부터 넓은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상:26쪽)

위 예문 (68)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밑줄 그은 부분 다음에 ‘나와서’ 정도를 보충해 주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결국 이 시기의 번역문에 이러한 무리한 명사문이 많다는 것은 이 시기의 번역이 상당히 직역 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려 주는 근거라 하겠다.

(68.cf)나는 運河로부터 나와서 넓은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69)그러나 五六월 더위의 밤중은 무르녹이는 듯이 더웁고 怒한 듯이 고요했다. (상:27쪽)

위 (69)의 예문도 역시 무리한 명사화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어구를 보충해

서 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9.cf)그러나 五六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밤중은 무르녹이는 듯이 더웁고 怒한 듯이 고요했다.

(70)官能은 친친 둘러서 습하는 營香숨에서 소사올라 互混相關하는 香氣와 그리고 紅과 黃色과의 물이 무수하게 반짝반짝하는 불꽃에 壓迫을 바닷다. (상:30쪽)

(70.cf)官能은 친친 둘러서 습하는 營香숨에서 소사올라 互混相關하는 香氣와 그리고 紅과 黃色이 섞인 물이 무수하게 반짝반짝하는 불꽃에 壓迫을 바닷다.

(71)이것이 우리님에게의 것이다. (월)

(71.cf)이것이 우리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72)독자 제군은 이것에 압서서의 된 일을 임의 아르섯지마는 당시의 나로서는 아모런 손 델 곳이 업슴으로 제백사가 모다 암중모색이였다. (백:118쪽)

(72.cf)독자 제군은 이것에 압서서 일어났던 일을 임의 아르섯지마는 당시의 나로서는 아모런 손 델 곳이 업슴으로 제백사가 모다 암중모색이였다.

(73)그러나 나는 <론돈>에서의 나의 무서운 행동의 초기(初期)이엇드면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일을 지금에는 고백할 용기가 업섯다.
(백:124쪽)

위 예문 (73)은 무리한 명사화의 연속으로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73.cf)그러나 나는 <론돈>에서 무서운 행동을 저지르던 나의 초기(初期)이엇드면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일을 지금에는 고백할 용기가 업섯다.

7. 화법

영어의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은 각각 국어에서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으로 수용된다. 국어의 직접인용문은 인용부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용문을 만드는 어미 ‘...라고’가 첨가된다. 그리고 간접인용문은 인용부호가 없이 인용부분의 끝에 어미 ‘...고’가 첨가된다.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있지 못하다.

(74)무슨 理由가 거기 잇섯는지 그가 급히 저에게 作別을 告할 때 그의 입에서 뜻없는 듯한 속새긴지 그러치 안흐면 물결의 속새긴지 異狀한 低音의 말소리가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해가 올라와서 한 時間 後에 -- 우리는 만납시다--그렵시다!> 속새기는 것을 나는 其然가 未然가 하게 들었다. (상:28쪽)

위 예문 (74)는 화법의 번역이 불투명하다. 전후에 필요한 어구를 보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옮겨 주어야 할 것이다.

(74.cf)무슨 理由가 거기 잇섯는지 그가 급히 저에게 作別을 告할 때 그의 입에서 뜻없는 듯한 속새긴지 그러치 안흐면 물결의 속새긴지 異狀한 低音의 말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해가 올라와서 한 時間 後에 -- 우리는 만납시다--그렵시다!> 라고 속새기는 것을 나는 其然가 未然가 하게 들었다.

(75)<누구가, 감히>--그이는 자의 갖가히 서 잇든 시판에게 쉰 목소래로 명하였다. (적:50쪽)

위의 예문 (75)에서는 대화문과 지문이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문장과 달리 행의 갈음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인용 부호 속의 문장에 마침표가 없어

서 읽기에 힘이 든다.

(75.cf) <누구가, 감히!>

그이는 자의 갖가히 서 잇든 시판에게 쉰 목소래로 명하였다.

(76) 그러면 머리털이 업서젓단 말이지 하고 물었다.

짐-에게 아즉도 그 선물을 아니 뵈엇군. 아내는 손을 벌녀서 그 우
에 선물을 올녀노코 숨을 재쳐 쉬며 男便 압헤 내미러 바쳤다.
(월)

위 예문 (76)을 보면 문맥상 첫째 밑줄 그은 부분은 짐의 말이고, 둘째 밑
줄 그은 부분은 아내의 독백에 해당하는데, 대화문과 혼잣말 부분 (독백)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읽기가 힘들다.

(76.cf) 짐이 “그러면 머리털이 업서젓단 말이지?” 하고 물었다.

‘짐-에게 아즉도 그 선물을 아니 뵈엇군.’ 아내는 손을 벌녀서 그
우에 선물을 올녀노코 숨을 재쳐 쉬며 男便 압헤 내미러 바쳤다.

(77) 헌금이라고? 그럴는지도 모른다. (백:115쪽)

위 예문 (77)은 이 부분이 독백인지, 아니면 생각 부분인지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다.

(78) 나는 당분간은 여기를 또 오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한즉 그것은 업
녀할 것 업다,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겠다, 그럴뿐 안이라 무엇이든
지 쓸데잇는 물건이면 아모 때이고 용달해 주겠다, 그리고 세움(計

算)은 언제까지 길게 끌더라도 괜찮타, 저 갖튼 사람이래도 들 잇는 눈은 부젓갈 구녕은 안이다, 영감갓트신 부자를 신용하기에 주저하지는 안켓다, 대체 영감은 좀 과하신걸--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행세를 하시니 안 땃다고 말한다. (백:116쪽)

위 예문 (78)은 전체적으로 자유간접화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섞여 있어서 이해가 힘들다. 화자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해 주어야 할 것이다.

(78.cf)내가 “당분간은 여기를 또 오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라고 한 즉, 그는 “그것은 염녀할 것 업다,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겟다, 그럴뿐 안이라 무엇이든지 쓸데잇는 물건이면 아모 때이고 용달해 주겟다, 그리고 세움(計算)은 언제까지 길게 끌더라도 괜찮타, 저 갖튼 사람이래도 들 잇는 눈은 부젓갈 구녕은 안이다, 영감갓트신 부자를 신용하기에 주저하지는 안켓다, 대체 영감은 좀 과하신걸--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행세를 하시니 안 땃다.”하고 말한다.

한편 영어를 비롯한 구미어에서는 대화의 절단 현상이 흔히 일어나지만 국어에서는 대화의 절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양쪽 언어의 어순 차이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어색하게 된 번역이 많이 눈에 뜨인다.

(79)그러나 <이러한 때> 하고 저는 音聲과 態度에 奇異한 變化를 지어서 말을 잇대며 <나는 君을 犠牲하야 單獨愉快하려 할 權利는 업다. 君이 놀랜 것은 無理가 아닐지도 모른다.> (상:31쪽)

(79.cf)그러나 저는 音聲과 態度에 奇異한 變化를 지어서 말을 잇대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君을 犠牲하야 單獨愉快하려 할 權

利는 업다. 君이 놀랜 것은 無理가 아닐지도 모른다.>

(80)<여기>하고 저는 일어서서 나의 팔에 기대서 房 안을 건일면서 말을 連하여 <여기 希臘에서 지마퓨에에 이르는, 또 지마퓨에에서 現代에 이르는 繪畫가 있다.> (상:31쪽)

(80.cf)저는 일어서서 나의 팔에 기대서 房 안을 건일면서 말을 連하여 말했습니다. <여기 希臘에서 지마퓨에에 이르는, 또 지마퓨에에서 現代에 이르는 繪畫가 있다.>

(81)<한가지 문제는> 하고 그는 벽을 보고 말하였다.

<아모러케 해도 출입할 마음이 안 생기니 종일 집에 들어안것는 게 조켓군> (도)

(81)그는 벽을 보고 말하였다.

<한가지 문제는, 아모러케 해도 출입할 마음이 안 생기니 종일 집에 들어안것는 게 조켓군>

8. 경어법

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경어법 체계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주어에 존칭의 대상이 나타나면 서술어의 어미에 존칭을 표시하는 형태소 '-시-'가 이에 호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이른바 객체 존대법도 형태소 '-삼-'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밖에도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서술어의 어미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도 존칭 표현은 대체로 잘 지켜지는 편이다. 국어가 경어법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오오! 그 이뿌신 夫人이, 그 이뿌신 夫人께서! (상:35쪽)

위 예문 (82)에서는 극존칭의 경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83)아랫층 문간방에는 郵便 받는 硯가튼 것이 잇기는 잇지마는 郵便 物 쪽에서 드러와 계시랴는 생각이 업는지 어니 때나 텅 뵈어 잇고 招人電鐘도 잇기는 하나 사람의 손스가락으로는 아무리 씨다듬고 달래도 드러먹지를 안는다. (월)

위 예문 (83)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무생물에 대한 존칭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특이하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편물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높여 준 것을 알 수 있다. 경어법 사용에 대단히 민감했던 당시 번역자의 감각을 간취할 수 있겠다.

(84)하나님이시여, 이래두 男便은 저를 입부다고 生覺하도록.....해
줍소사. (월)

위 예문 (84)에서는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맥상 존칭의 대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화자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경어법 체계가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윤색의 노력이 엿보인다.

(85)그러면 머리털이 업서젓단 말이지 하고 물었다.

짐-에게 아즉도 그 선물을 아니 뵈엿군. 아내는 손을 벌녀서 그 우
에 선물을 올녀노코 숨을 재쳐 쉬며 男便 압헤 내미러 바쳤다.

(월)

위 예문 (85)에서는 존칭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어형이 선택되었다('주다' → '바치다'). 이른바 어휘에 의한 보충법적 존경법이다.

(86)「만일 도라오시게 되면 그러케 말을 엿주리다마는 아마 도라오시지
안을 꺾이요.」(백:117쪽)

위 (85)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칭 어휘를 통한 경어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어법의 채택은 상당히 세련된 국어화된 번역이다. 문장은 전반적으로 직역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어휘는 상당히 국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7)참동안 입으시기는 넉넉합지요. (백:121쪽)

겸양 표현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경어법에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88)그것은 오늘밤 야회에 다행히 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잇스즉 귀하께서 그 자리를 채워 주는 일이란 말이었다.(백:124쪽)

위 예문 (88)은 경어법상 문장 앞뒤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주어에 ‘귀하께서’가 나왔으므로 서술어 부분이 ‘채워 주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88.cf)그것은 오늘밤 야회에 다행히 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잇스즉 귀하께서 그 자리를 채워 주시는 일이란 말이었다.

(89)聖上 貴妃 두 夫人이 모다 함께 잡수시고 게서요. (양)

극존칭의 사용으로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을 이끌어 내고 있다.

(90)그런데 貴妃께서는 죽음도 목구녕에 넘기지 못하시고 長安에서 가
지고 오신 麥酒만 잡숫고 계시다우. (양)

위 예문 (89)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의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완전한 극존칭의 호응을 이루고 있다.

(91)下數가 至當하옵십니다. (양)

존칭과 겸양 표현이 모두 들어 있다.

(92)綠山이의 將來의 失敗는 下敎와 가티 必然의 結果이옵니다. (양)

(93)그러하옵지마는 事體는 甚히 重大하옵고 火急하옵니다. (양)

(94)願하옵건대 私情을 버리옵시고 民衆의 意思를 尊重하야 恤시기를 바라옵니다. (양)

위 예문 (92)-(94)에서는 겸양의 표현이 나타나 있다.

(95)삼가 이 글월을 太眞皇后에게 맞치나이다. (양)

위 예문 (95)에서는 서술어의 형태로 미루어 ‘에게’ 대신 ‘께’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96)이번의 擧兵은 오직이 달아래 盟誓를 밟자고 함이오니 이 몸을 皇后께 바치는 外에 달은 所願은 이 세상에 업삽나이다. (양)

여기서는 위 (95)와 달리 ‘께’가 사용되고 있다.

(97)나도 밧그로 갈테야. 나를 밧그로 나아가게 해 주어요. (양)

위 예문 (97)에서는 앞문장이 독백체인 점을 감안하여 두 문장의 존칭체계를 달리 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다. 뒷문장은 예컨대 옥사장을 대상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98)저희들의 要求는 貴妃도 또한 丞相과 두 夫人과 가티..... (양)

위 예문 (98)에서는 겸양 표시의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99)당신이 저녁 잡수스러 들어오시면 쓸려구 그랫어요. (도)

어휘에 의한 존칭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100)하느님께옵서 어찌하여 나를 육지를 밟게 하셨노. (로:30쪽)

극존칭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101)뒤스감당은 仁厚한 나리께선 다 해 줄 것이다. (순:259쪽)

존칭의 호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102)여보 웨 그러우 그러케 남의 얼굴만 보니 (월)

(103)내 머리는 쉬 자란다우 (월)

(104)당신은 나 한 사람에게 드럿다는 말습이우? (양)

위 예문 (102)-(104)를 보면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하우’체가 사용되고 있다. 원래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던 이 화법이 당시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5)못하게 하십시오. (양)

위 예문 (105)는 여성들의 대화체이다. 문장 전후의 화법을 적절하게 바꾸어 주고 있다.

9. 연어(連語)의 번역

여기서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를 대상으로 번역문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단어나 구절의 연결(collocation)이 이에 해당한다.

(106)한마디도 救助者는 말하지 안했다. (상:28쪽)

위 예문 (106)에서는 강조를 위하여 도치된 원문의 번역문에서도 어순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7)大理石의 얼굴의 蒼白함이 大理石의 가슴의 動搖가 大理石의 발의 淨함이, 突然히 制御키 어려운 眞紅의 민물을 일면에 들쓰는 것을 우리는 본다. (상:28쪽)

전체적으로 명사문을 풀어서 번역해야 자연스럽다. (앞절 6항 참조)

(107.cf)大理石의 얼굴이 蒼白하고 大理石의 가슴이 動搖하고 大理石의 발이 淨한 것이, 突然히 制御키 어려운 眞紅의 민물을 일면에 들쓰는 것을 우리는 본다.

(108)새로이 오르는 太陽의 光線은 窓을 비치여 모든 物件 우에 深紅色을 부었다. (상:30쪽)

위 예문 (108)에서 ‘우’(현대 국어의 ‘위’)라는 명사는 불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전치사 ‘on’, ‘at’, ‘in’은 번역을 안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108.cf)새로이 오르는 太陽의 光線은 窓을 비치여 모든 物件에 深紅色을 부었다.

(109)내 다른 房들은 決코 이와 가튼 것이 아니고 다만 流行的 癡愚의 過剩이다. (상:31쪽)

전형적인 직역투의 문장이다.

(109.cf)내 다른 房들은 決코 이와 가튼 것이 아니고 다만 한창 유행하는 바보스러움이 지나쳤을 따름이다.

(110)이 狂亂的 光景은 내가 지금 거기에 향하야 速히 가려고 하는 眞實한 꿈의 나라에서 荒唐한 幻想에 適合하게 나를 造形하고 있다. (상:35쪽)

위 예문 (110)에서는 전치사 'to'가 직역되어 어색하다.

(110.cf)이 狂亂的 光景은 내가 지금 速히 가려고 하는 眞實한 꿈의 나라에서 荒唐한 幻想에 適合하게 나를 造形하고 있다.

(111)그런데다가 내일은 무슨 날이냐고 하고 보면.....크리쓰마쓰 아 아 크리쓰마쓰--사세가 이려고 본즉 별수 업시 다 찌그러진 의자에 응덩이를 걸치고 한숨을 내쉬는 수박게는 업다고 할 수박게 그러니까 떼일러-는 그대로 했다. (월)

지나치게 직역투로 된 설명적인 번역이다.

(111.cf)그런데다가 내일은 무슨 날이냐고 하고 보면.....크리스마스
아아 크리스마스--사세가 이려고 본즉 별수 업시 다 찌그러진 의
자에 응덩이를 걸치고 한숨을 내쉬는 수밖엔 없었으므로 떼일러-
는 그대로 했다.

(112)만약 사바의 女皇이 이 집 건너편에 역시 貰房사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떼일러는 어느 때든지 한편은 자기의 칠칠한 머리채를 창 밧
그로 축 느러트려서 여황 陛下의 金玉寶物이 낮이 업게 했슬는지
도 모른다. (월)

(112.cf)만약 사바의 女皇이 이 집 건너편에 역시 貰房사리를 하고 있
다고 하면 떼일러는 어느 때든지 한편은 자기의 칠칠한 머리채를
창 밧그로 축 느러트려서 여황 陛下의 金玉寶物을 무색하게 했을
지도 모른다.

(113)환자들의 몸둥이에와 특히 그 얼굴에 잇는 진홍빛 반점은 그 괴질
의 표적이라. (적:45쪽)

위 예문 (113)은 전형적인 일본어 重譯의 예로 생각된다. 자연스러운 국어
번역은 '에'가 생략된 어형이다.

(113.cf)환자들의 몸둥이와 특히 그 얼굴에 잇는 진홍빛 반점은 그 괴
질의 표적이라.

(114)반쯤 억제하는 우숨이 그 소리가 떠나감을 따라 뒤를 이어서 떠나

온다. (적:49쪽)

위 예문 (114)에서는 원문의 품사를 그대로 옮겨 주다 보니 불필요한 어귀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냥 ‘떠나면서’ 정도면 족하다.

(114.cf)반쯤 억제하는 우습이 그 소리가 떠나면서 떠나온다.

(115)이와 갓흔 그 환상의 모임에서는 생각해 볼 것도 업시 평범한 모양은 이갓흔 감각을 흥분식힐 수 업는 것이다. (적:49쪽)

원문의 동사 ‘excite’의 기본 의미에 집착한 결과, 어색한 국어 표현이 되었다. ‘감각을 자극하다’ 정도가 좋을 듯하다.

(115.cf)이와 갓흔 그 환상의 모임에서는 생각해 볼 것도 업시 평범한 모양은 이갓흔 감각을 자극할 수 업는 것이다.

(116)오후의 립회가 끝나면 반공일은 자유의 몸이엇슴으로 나는 조고만 뽏트에 돛을 달고 항구 안을 즈어 도라단이는 것이 한 습관이 되엇섯다. (백:112쪽)

(117)때는 이른 여름의 쾌청한 어떠한 일요일이엇섯다.(하:68쪽)

위의 두 예문들은 영어의 정관사 ‘a’를 그대로 직역한 결과이다. 물론 여기서도 불필요한 단어이다.

(116.cf)오후의 립회가 끝나면 반공일은 자유의 몸이엇슴으로 나는 조고만 뽏트에 돛을 달고 항구 안을 즈어 도라단이는 것이 습관

이 되어 버렸다.

(117.cf)때는 이른 여름의 쾌청한 일요일이었었다.

(118)또 만일 내가 이 지전을 엮던 은행에 예금하든지 혹은 던당국(전당포)에 맞기더라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백:118쪽)

(118.cf)또 만일 내가 이 지전을 엮던 은행에 예금하든지 혹은 던당국(전당포)에 맞기더라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119)이것에 관계를 맺기를 사퇴할 것은 정한 일이다. (백:118쪽)

(119.cf)이것에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은 정한 일이다.

(120)나는 그 자의 붓든 일이 다 끝나기까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백:119쪽)

위 예문 (120)에서는 관형격 '의' 대신 주격 '가'가 쓰여야 한다. 이것은 원문의 부정사구나 동명사구를 직역한 데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들도 마찬가지이다.

(121)하긴 저의 들은 걸로 그것은 알지는 못합니다.(백:121쪽)

(121.cf)하긴 제가 들은 바(걸)로 그것은 알지는 못합니다.

(122)그리고 악수할 것을 급히 중지하자 난처한 괴색으로 못는다.

(백:125쪽)

(* 이 경우에는 차라리 '악수'를 그냥 명사로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122.cf)그리고 악수를 급히 중지하자 난처한 괴색으로 못는다.

(123)軍士들의 하는 말은 대체 무슨 意味냐? (양)

(123.cf)軍士들이 하는 말은 대체 무슨 意味냐?

(124)國民들의 하는 말도 올치마는 우리들을 못살게 하는 者는 分明히 弄奸하는 奸人이야. (양)

(124.cf)國民들이 하는 말도 올치마는 우리들을 못살게 하는 者는 分明히 弄奸하는 奸人이야.

(125)사람들은 모다 만 사람들의 하는 일을 알고 안졌다.(하:70쪽)

(125.cf)사람들은 모다 만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고 안졌다.

(126)남자는 자기의 내의를 통하여 녀자의 가슴의 울렁거리는 것을 늦겼다.(하:71쪽)

(126.cf)남자는 자기의 내의를 통하여 녀자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늦겼다.

아래의 예문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127)貴妃와 두 夫人을 向하야 힐긔 一瞥을 던지며 말한다. (양)

(*동사로 풀어서 옮기면 자연스럽다.)

(127.cf)貴妃와 두 夫人을 向하야 힐긔 보며 말한다.

(128)저는 그 위에 또 보고가 있습니다.(백:2-88쪽)

(128.cf)저는 그것 말고 또 보고가 있습니다.

(129)내 앞에 내려온 貴妃는 憂鬱에 싸혀 서서 두 손으로 가까이 잇는 難民의 머리를 일우만지면서 落淚한다. (양)

(129.cf)내 앞에 내려온 貴妃는 憂鬱한 심정으로 서서 두 손으로 가까이 잇는 難民의 머리를 일우만지면서 落淚한다.

(130)또즈는 그들이 아크라릴 아래를 지나 거리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 (도)

(*부정사로 이루어진 목적어 어귀를 직역한 표현이다. ‘것’ 대신 ‘모습’, ‘장면’, ‘광경’ 정도를 쓰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30.cf)또즈는 그들이 아크라릴 아래를 지나 거리를 건너가는 광경을 보았다.

(131)그 여자는 참으로 나에게 마음에 든다. (곰)

(131.cf)그 여자는 참으로 내 마음에 든다.

(132)그건 당신이 나에게 마음에 든이까요. (곰)

(132.cf)그건 당신이 내 마음에 든이까요.

(133)부인에게 대하야는 오죽 한 배상이 딸의 명예 손실을 보충할 수가 잇섯다.(하:69쪽)

원문의 for를 기계적으로 ‘대하야’로 대응시키고 있다. for를 as for로 보아서 오히려 ‘부인으로서는 오직 손해 배상만이 딸의 명예 손실을 보충할 수가 있었으리라’ 정도가 문맥에 어울릴 것이다.

(134)양민을 만들어 주겠다고 굳게 맹세하므로 마음이 돌려 그만 그 아 이를 팔았습니다.(로:29쪽)

밑줄 그은 부분을 ‘마음을 돌려’라고 하든지 ‘마음이 돌아와서’라고 해야 한다.

(134.cf)양민을 만들어 주겠다고 굳게 맹세하므로 마음을 돌려 그만 그

아이를 팔았습니다.

(135)자선으로 얻은 것은 돈 대신 정신적 고통을 지불하여야 한다.
(순:259쪽)

원문의 동사 pay를 직역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뜻이 잘 안 통하게 되어 버렸다. 주어부를 그대로 놔 두려면 서술어 앞에 '그 값으로'를 보충해 주어야 하고, 서술어를 그대로 놔 두려면 주어부를 '...것에 대해서는'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135.cf)자선으로 얻은 것은 돈 대신 정신적 고통을 그 값으로 지불하
여야 한다.

(136)별로 한 친구도 업시 지나는 동안에 마음에 다른 생각이 이러났습
니다.(소:37쪽)

'친구 하나도 없이'가 자연스럽다.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직역한 데서 생긴 어색한 표현이다. 자연스러운 번역은 생략한다.

(137)그때 그 물너가든 놈은 베르벳트 담요 깔린 방 한쪽 구석에 도달
하자 돌연이 방향을 변해서 따라가는 공에게 대항하였다.(적:51
쪽)

밑줄 그은 부분은 '변화시킨다/ 바꾼다' 등의 동사가 적당하다.

(137.cf)그때 그 물너가든 놈은 베르벳트 담요 깔린 방 한쪽 구석에 도
달하자 돌연이 방향을 바꾸어서 따라가는 공에게 대항하였다.

10. 한문투의 번역

(138)只今 그의 아름다운 외아들은 물속에 깊이 잠겨서 어린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젊은 母親의 甘味한 撫愛를 생각하고 照耀하게 母親의 이름을 불러 보려고 애타서 生命이 盡하였을 것이다. (상:26쪽)

밑줄 그은 부분은 흡사 한문에 구결을 단 형식과 비슷하다. 문어체 번역투라고 할 수 있겠다. ‘목숨이 다했을’ 정도가 자연스럽다.

(139)<여기>하고 저는 일어서서 나의 팔에 기대서 房 안을 건일면서 말을 連하야 <여기 希臘에서 지마푸에에 이르는, 또 지마푸에에서 現代에 이르는 繪畵가 있다.> (상:31쪽)

고대 소설의 문체와 같은 분위기가 나는 문어체로서 ‘말을 이어서’ 정도가 자연스럽다.

(140)그리고 그 녀자는 조금 불안한 기색을 나타내매 우리들은 잘못 생각이나 하여서 첫해의 월급을 너무 만케 짐작이나 하지 안었나 하였다.(백:2-82쪽)

위 (139)와 마찬가지로 마치 고대소설을 보는 듯한 의고체 어투이다. ‘나타내기에’ 정도가 좋을 것이다.

(141)아니 어찌면 그 놈의 部下로 말미아마 목이 다라날는지도 모른다.
(양)

원문의 동사 ‘由’를 직역한 결과이다. 그냥 ‘부하한테’ 정도면 족하다.

(142)나는 나의 人格을 僞하여 希望을 僞하여 前途를 僞하여 眞正한 愛情을 僞하여 奮鬪하고 努力하지 안흐면 아니될 때에 먼저 올라버니를 犠牲에 供하얏소. (양)

전형적인 한문 직역투의 번역문이다. 그냥 ‘희생시키겠소’가 자연스럽다.

(143)唯一하온 良策은 陛下께옵서 貴妃에게 對하여 自決을 내리시옵는 것이옵니다. (양)

한문 직역으로 인하여 어색해진 표현이다.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정도가 자연스럽다.

(144)산신이 가로대 대력왕이란 곳 우마왕이니다. (신)

고대 한문 소설에 잘 쓰이던 번역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대화문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다.

(145)열窓으로 갖가히 가서 無心히 바라본즉 재스빛 돛은 고양이가 을스년스러운 뒤뜰 담 위로 왔다갔다 한다. (월)

의고(擬古)체 표현이다. ‘바라보니’ 정도가 자연스럽다.

(146)이 절집은 넓고도 굉장한 건물이요 공의 별나고도 장엄한 취미로서 지은 것이었다. (적:46쪽)

의고체적 연결 표현이다. ‘넓고도 굉장한 건물인데 공의 별나고도 장엄한 취미로서...’ 정도가 될 것이다.

(147)그 중의 하나인 말하였다. (도)

지금은 안 쓰이는 주격 조사의 용법이다.

(147.cf)그 중의 하나가 말하였다.

(148)글쎄 무얼 먹을꼬? (도)

현재는 ‘가’이지만, 중세 국어 시절에는 의문사를 동반한 의문문의 종지형으로 ‘고’가 쓰였다.

(148.cf)글쎄 무얼 먹을까?

(149)그러나 창피한 실직자인 아버지가 하로 걸너옴 와서 딸에게 이 약이 좀 하겠다고 졸나대는 고로 부인은 다시 딸을 들여 안쳐서 집 안일을 보살피게 하였다.(하:68쪽)

의고체 표현이다. 현대 국어의 어법으로는 ‘졸나대는 바람에’가 좋을 것이다.

(149.cf)그러나 창피한 실직자인 아버지가 하로 걸너옴 와서 딸에게 이 약이 좀 하겠다고 졸나대는 바람에 부인은 다시 딸을 들여 안쳐서

집안일을 보살피게 하였다.

(150)또한 그는 세상의 경험을 다소간 한 사람이었는 코로 무지가 그의 행동의 변명도 되지 못할 것이다.(하:69쪽)

의고체적 접속 표현이다. ‘사람이엇기 때문에, 사람이엇는 관계로’ 정도가 자연스럽다.

(150.cf)또한 그는 세상의 경험을 다소간 한 사람이엇는 관계로 무지가 그의 행동의 변명도 되지 못할 것이다.

(151)대성이 가로대 형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실지라도 내 접은 나지 아니하나 다만 보대를 구하고자 함이 나의 본심인즉 제발 빌너 주기를 바라노라. (신)

밑줄 그은 부분 ‘...노라’로 끝나는 종지형도 의고체적 문투이다.

(152)그 못된 잔나비 놈이 어느 때에 지나갓나뇨? (신)

위 (151)과 마찬가지로이다.

(153)우스면서 죽는다는 일은 모든 榮光스러운 죽임 가운데 그 중 榮光스러운 것이다! (상:30쪽)

(154)이 詩가 英吉利語로 써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저는 모든 獲得한 能力 중에서 그 中 秘密 가지기를 特異한 快樂

으로 아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상:33쪽)

위 (153)과 (154)는 의고체 중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중복된 잉여적 표현이다.

(153.cf)우스면서 죽는다는 일은 모든 榮光스러운 죽음 가운데 가장 榮光스러운 것이다!

(154.cf)이 詩가 英吉利語로 써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저는 모든 獲得한 能力 중에서 秘密 가지기를 特異한 快樂으로 아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155)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에 갖고 싶은 호사품을 쓰고 남도록 사가지고 본영을 <하노파-정>(町)의 상동 호텔에다 진을 쳤다.
(백:122쪽)

‘본영을’과 ‘진을’이 모두 ‘쳤다’에 걸리므로 중복된 표현으로 보인다. 일종의 목적어 중출 현상이다.

(155.cf)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에 갖고 싶은 호사품을 쓰고 남도록 사가지고 <하노파-정>(町)의 상동 호텔에다 본진을 쳤다.

다음 예들에서는 동격 표시어가 불필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156)캠파닐의 廣場은 사람의 그림자도 갖추서 쓸쓸하게 沈默하고 빛누어 있다. (상:26쪽)

동격 표시어 of를 직역한 표현이다. 없어야 좋을 것으로 보인다..

(157)그때 運河 우에 배라고는 내 배의 척뿐이었으나 벌써 健康한 水泳者들이 全水面을 搜索하고 잇섯다. (상:26쪽)

‘내 배 한 척뿐’ 정도면 좋을 듯하다.

(158)그는 陰鬱의 莊嚴한 幻想的의 巨大한 建築의 하나이었다. (상:29쪽)

‘장엄하고 환상적인’의 뜻으로 관형격 조사의 용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전치사 of의 이중 번역(的, 의)인지도 모른다.

(159)내일은 크리스마스의 당일이라고 하는데 원팔라 -팔십칠센트쓰밧게는 사랑하는 짐-男便-에게 선물을 사드릴 돈이 없다. (월)

불필요한 관형격 조사이다. 이하 (160)-(164)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160)또 만약 소로몬의 왕이 이 집 문직이로 잇서서 자기의 패물이란 패물을 지하실에 굻득히 노왓다 하드래도 짐은 보앗슬 것이다. (월)

(161)공은 뺨 칼을 놉히 들고 급하고도 맹렬하게 거러가서 자취를 감추려는 그 괴물 갓가히 삼사척의 내에 드러갓다. (적:51쪽)

(162)저만콰의 그들이라 하면 그의 세력 범위에서 보람직한 지위를 만
히 가지고 잇슬 것임으로. (백:119쪽)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163)방으로 끌고 가서 산갓치 싸힌 불합격의 옷을 휘저슨 뒤에 그 중
혈한 놈을 나를 위해서 끌너 준다. (백:120쪽)

(*수식 어귀를 이끄는 원문의 of를 직역한 결과이다.)

(164)무네 부인은 맥교 안락의자에 안저서 하인의 메아리가 조반그릇
치는 것을 보고 잇섯다.(하:68쪽)

11. 조사

(165) 넓은 마당의 큰 時計는 伊太利의 다섯時를 報하였다. (상:26쪽)

주격조사 ‘가’가 좋을 듯하다. 현대에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주격과 주제격의 용법이 여기서도 혼란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문장에 새로 등장하는 정보에는 주격 조사가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166) 우리의 배는 천천히 歎息의 다리에 向하여 흘러져 갔다. (상:26쪽)

원문의 전치사 to를 직역한 국어에 맞지 않는 어법이다. ‘를’이 좋을 듯하다.

(167) 燈火는 宮殿 內部에 살어졌다. (상:28쪽)

원문의 전치사 into가 잘못 번역되어 있다. ‘로’가 자연스럽다.

(168) 이 奢侈한 램프와 香爐에게 甚히 熱心으로 親하고자 하는 崇嚴한 太陽에게 바치기를 爲하여, 술을 붓지 안흐려는가! (상:34쪽)

조사 ‘에게’는 유정(有情) 체언에만 붙을 수 있으므로 의인화된 표현이 아닌 경우라면 ‘에게’를 ‘에’로 고쳐야 한다.

(169) 그런 자랑거리의 媞일러-의 머리털은 金灰色빛 瀑布가치 꾸불렁꾸

불령 느러진 채 윤이 빗난다. (월)

이 관형격 조사 '의'는 계사의 활용형 '인'으로 바꾸어야 자연스럽다. '그런 자랑거리인 데일러의 ...' 정도가 될 것이다.

(170)그란즉 그 자는 세상에도 조롱적의 낫작을 해 가지고 이러케 씨까 스른다.(백:120쪽)

관형격 '의'는 적당하지 않다. '조롱기가 어린' 정도가 좋을 듯하다.

(171)대개 영국 사람은 만찬에 초대받기 전에 제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은 연회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겠다고 미리 아라차리는 수작이었다.(백:2-80쪽)

주제격 표현의 '은/는'이 중복되어서 비문이 되어 있다. 앞 부분을 주격으로 바꾸어야 자연스럽다.

(171.cf)대개 영국 사람이 만찬에 초대받기 전에 제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은 연회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겠다고 미리 아라차리는 수작이었다.

(172)나는 우리들은 最後가 豫感이 되어 슬푸구나. (양)

두번째 주제 표시 조사 '은'을 관형격 '의'로 바꾸어야 한다.

(173) 그는 병정갓치 음탕한 말 쓰기를 조화하고 늘 밤이 이슬해서야 집
에를 돌아왔다.(하:67쪽)

목적격 조사 '를'은 불필요하다.

(174) 오랜 동안에 모든 적공(積功)이 모다 나무아미타불이다.(하:70쪽)

처격 '에'가 아닌 관형격 '의'가 적당하다.

(175) 말이 마치자 곧 공중으로 들어갔다. (신)

목적격 '을'이 주격 '이' 대신 쓰여야 한다.

(176) 그런 눈치를 채이자 나는 그럴 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극히 이성
적의 행동을 하였다.(백:115쪽)

관형격 조사 '의'보다 계사 '인'이 좋을 것이다.

12. 기타

(177)프리니의 아간사스가 더 보들엽게 녹아 흐를듯한 그 눈 가운데.
(상:28쪽)

완전한 문장이 아닌데 종지형이 아닌 명사로 끝이 나서 이른바 소형문 (minor sentence)이 되어 있다. 아래 (178)과 (179)도 마찬가지인데 소형문은 국어에 적합하지 않다.

(178)저만큼의 그들이라 하면 그의 세력 범위에서 보람직한 지위를 만
히 가지고 잇슬 것임으로. (백:119쪽)

(179)나는 나이 열넷에 낫을 때에 劍橋 大學의 에마뉴엘 學寮에 들어가
三年間. (소:37쪽)

(180)公爵夫人 아후로지테의 等身像을 내여노했다. (상:34쪽)

원어 Aphrodite가 구개음화되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음소 연결이 불가능한 일본어의 증역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영어 단어 tube가 '튜브'로 일본에서 차용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81)좌우에는 벽마다 한가운데 키크고 좁은 고식크식 창문이 망의 구
비에 따린(딸린) 소잡은 마루 우에 열리어 잇었다.(적:46쪽)

원어 Gothic의 음차 번역어인데, 제 2음절의 음상으로 보아 일본어에서 중

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182)그것은 품행이나 문벌이나 말할 것도 업는 한 외국인이 한 사람의 친구도 업는 이 「론돈」에 떠드러왔다고 가정해 노코 례의 「백만방」(일천만원)의 지전 한 장밋게는 한 푼도 업고 또 그것의 소유권을 설명할 길도 업다 하면 그 남자의 운명이 엇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형은 그 사람은 굶어 죽으리라 말하고 아오는 죽지 안는다는 것이었다. (백:114쪽)

‘백만파운드’를 ‘일천만원’으로 풀어 준 것은 독자를 위한 상당한 배려로 생각된다. 외국어의 분위기도 살리면서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동시에 배려한 조처이다. 옛 언해류의 책에서 난해한 부분을 본문에 협주로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

(183)양자(대릴사위)라는 지위올시다.(백:2-88쪽)

원문의 son-of-law를 ‘양자’로 직역한 다음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릴사위’라는 뜻을 괄호 안에 보충해 주고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받게 될 독자들의 충격을 미리 완충시켜 주고 있다.

(184)뭐 내게 드렸다구요? 이 이야기를 할 그때에는 뭐 나 한사람만 잊지 안했고 그외에 여러 사람이 잊셨지요. (양)

(185)亭子에 서서 芍藥을 바라보는 네 모양은 아마도 더한層 아름다울 것이다. (양)

문어와 구어가 섞여 있다. 완전한 언문일치가 되어 있지 못하다.

(186) 당신은 앉으셨구려? (곰)

원문이 희곡인 점을 감안하여 구어체로 적절히 옮기고 있다.

(187) 여섯 점에 오지 그러치 안흐냐? (도)

문장 부호가 빠져서 부가의문문(tag-question)의 처리가 미숙하다. ‘여섯 점에 오지, 응? 안 그러니?’ 또는 ‘여섯 점에 올 거 아니니?’ 정도가 자연스럽다.

(188) 그중에도 어느 한놈은 勇敢하게도 내 얼굴 우에까지 올라와서는 과연 驚歎할 만하다는 표정을 하며 손을 들었습니다.(소:38쪽)

동사 다음에 보조사 ‘는’이 온 것으로 미루어 일본어의 중역일 가능성이 높다.

II. 어휘 사용 양상

본절에서는 1920-30년대의 번역에 나타난 어휘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역투의 어휘

1920-30년대 번역문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대 국어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다수 어휘의 존재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직역투의 어휘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에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알아보기로 한다.

(1)거기는 確實히 이 世界와는 달라서 異狀한 思想과 이상한 考察이 존재하다. (상:25쪽)

국어에서는 추상명사의 용법이 비교적 미약한데, 위 (1)의 예문에서는 추상명사가 존재를 표시하는 용언의 주어로 사용되어 어색한 표현이 되고 있다. 아래처럼 ‘고찰 방식’이나 ‘고찰법’, ‘사고 방식’ 정도의 어휘가 자연스럽다. 원문의 추상명사를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생긴 오류로 보인다.

(1.cf)거기는 確實히 이 世界와는 달라서 異狀한 思想과 이상한 考察법이 존재하다.

(2)나는 이 逢遭의 때를 極히 紛亂한 記憶으로부터 생각해 낸다 그러나 나는 잘 記憶하고 있다 아아! (상:26쪽)

위 (2)의 어휘는 ‘우연히 만난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3)只今 그의 아름다운 외아들은 물속에 깊히 잠겨서 어린 가슴이 찌어지도록 그 젊은 母親의 甘味한 撫愛를 생각하고 照耀하게 母親의 이름을 불러 보려고 애타서 生命이 盡하였을 것이다. (상:26쪽)

위 (3)에 쓰인 밑줄 그은 두 단어도 현대 국어의 용법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감미하다’는 ‘감미롭다’로, ‘무애’는 ‘애무’로 쓰이고 있다.

(4)그러나 그 全體의 容子は 모든 사람이 그 生涯에 어떤 때 한번 보고 뒤에 두번째 보는 듯한 容貌의 하나였다. (상:29쪽)

위 (4)에 나타난 단어 ‘용자’도 쓰이지 않고 있다. 이 단어는 ‘모습’의 뜻인데 일본어에 동일한 어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번역 전체가 일본어의 중역일 가능성이 짙다.

(5)不純潔한 色調는 잇서도 男子이면 누구든지 새로운 情緒의 戰慄업시는 읽지 못할 줄이었다. (상:32쪽)

‘순결’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不’을 첨가하여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용되지 않는 기계적인 조어법으로 보인다. 위 (5)의 단어와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어형은 ‘불결(不潔)’이다.

(6)아랫층 문간방에는 郵便 받는 櫃가튼 것이 잇기는 잇지마는 郵便物 쪽에서 드리와 게시랴는 생각이 업는지 어니 때나 텅 뷘어 잇고 招人電鐘도 잇기는 하나 사람의 손가락으로는 아무리 씨다듬스고 달래도 드리먹지를 안는다. (월)

현재는 ‘초인종’으로 쓰이고 있다. 현대에 이르면서 음절의 탈락을 통한 어형의 간소화를 보이고 있다.

(7)열窓과 열窓 사이 벽에 거울이 하나 걸녀 있다. (월)

역시 위 (7)도 현재는 ‘창문’으로 쓰인다.

(8)그리고 얼마 안 되여서 담요 깔린 큰방에 세워 잇든 검은 박달나무 시계가 시간을 친다. (적:48쪽)

원문의 동사 ‘strike’를 그대로 옮긴 전형적인 직역투의 번역 어휘이다. 아래처럼 ‘시간을 알린다’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8.cf)그리고 얼마 안 되여서 담요 깔린 큰방에 세워 잇든 검은 박달나무 시계가 시간을 알리고 있다.

(9) 이와 갖흔 그 환상의 모임에서는 생각해 볼 것도 업시 평범한 모양은 이갖흔 감각을 흥분식힐 수 업는 것이다. (적:49쪽)

원문의 동사 'excite'의 기본 의미에 집착한 결과, 어색한 국어 표현이 되었다. '감각을 자극하다'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10) 나는 당분간은 여기를 또 오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한즉 그것은 염녀할 것 업다,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겠다, 그럴뿐 안이라 무엇이든지 쓸데잇는 물건이면 아모 때이고 용달해 주겠다, 그리고 세움(計算)은 언제까지 길게 끌더라도 괜찬타, 저 갖튼 사람이래도 들 잇는 눈은 부젧갈 구녕은 안이다, 영감갓트신 부자를 신용하기에 주저하지는 안켓다, 대체 영감은 좀 과하싯겠--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행세를 하시니 안 됐다고 말한다. (백:116쪽)

위 (10)에서 밑줄 그은 단어 '쓸데잇는'은 현재 쓰이지 않지만, 그 반대어인 '쓸데없다'는 흔히 쓰이고 있다. 이 문맥에 맞는 어휘는 '쓸모잇는' 정도가 될 것이다.

(11) 저만콰의 그들이라 하면 그의 세력 범위에서 보람직하 지위를 만히가지고 잇슬 것임으로. (백:119쪽)

이 어휘도 현재는 '바람직한'으로 쓰인다.

(12)나는 일상 복운(卜運)이 조타. (백:125쪽)

현재는 '운수', '재수' 등의 어휘가 자연스럽다.

(13)그러나 나는 그 여자한테는 그러케 말하지 안코 이 달에 놀내 즐
작정으로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두었다. (백:2-83쪽)

현대어로는 '마음속에'가 자연스럽다. 원문의 전치사에 너무 이끌린 번역어
일 수도 있다.

(14)女子의 卑怯한 自己的 行動으로 하여 일이 모두 망거진단 말이야.
(양)

한문 원문의 한자어가 우리 국어에서도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보
장은 없다. 여기서 '이기적 행동'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15)이 愉快는 지금까지 쏠혀 맛보지 못한 것이다. (양)

위 (14)의 어휘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쾌함' 정도가 자연스럽다.

(16)그러나 나는 幸福이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幸福이다. (양)

국어의 정상적인 어법상으로는 ‘행복하다’가 자연스럽다.

(17)두려운 듯이 또한 不自由한 듯이 말한다. (양)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자연스럽다.

(18)軍士로서 丞相을 죽이고 猶爲不足하여 國戚되는 貴婦人까지 殺害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곳 未曾有한 큰일이다. (양)

‘미증유의’가 자연스럽다.

(19)不滿足합니다. (양)

‘불만족스럽다’가 자연스럽다.

(20)그는 집합사진을 박는 사진사 갖탕다. (도)

지금은 ‘단체 사진’으로 쓰인다. 혹시 당시의 군국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인지도 모른다.

(21) 대체 우리를 갖고고 어떠케 하실 모양입니까? (도)

현재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현재는 ‘작정’이 되어야 뜻이 통한다.

(22) 일견 와 주셔서 감사하오. (도)

과거에 쓰이다가 이 시기에는 이미 그 세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의 어휘이다. 현대 국어 ‘일부러’의 뜻이다.

(23) 교육없는 괴물이구려! (곰)

‘교양없는’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24) 그는 얼굴이 헛스그래하고 행색이 초초하고 허리가 굽고 몸집 작은 술떡쟁이였다. (하:67쪽)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술꾼’ 정도가 자연스럽다. 혹시 앞선 시대의 조어법 흔적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25) 過勞와 惡食으로 乘員中 십이명은 죽어 버리고 십일월 오일에는 비까지 큰 바위에 부딪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37쪽)

‘승무원’이 자연스럽다.

2. 의고적 어휘

여기서 살펴볼 어휘들은 국어의 옛모습을 확연히 반영해 주고 있는 것들이다.

(26)--그대가 現在 잇는 것 갖지는 안코, 이를테면 悽涼한 谿間과 그림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대가 잇섯슬 듯한, 卽 저 몽롱한 幻影의 市--별의 사랑을 밋는 極樂 아라지오式 宮殿의 넓은 門窓들이 沈默하는 바다의 이상한 모든 秘密의 운에, 또 그대가, 김흔, 쓴 意味의 눈끼를(눈길을) 던지고 잇든 그대 自身의 베니스에서, 莊嚴한 冥想의 生涯를 보내고 잇든 그대의 모양이! (상:25쪽)

중세국어 ‘우흐’의 흔적이다.

(27)그 刹那 後에 저는 아즉 살아서 숨쉬는 小兒를 꼭 붓안고 대공작 부인 옆해 섰슬 때 물이 흠뻑 저저서 묵어운 저의 外套가 허부렁하게 끌러저서 저의 발 알에 뭉키었다. (상:28쪽)

현대어로는 ‘붙들어 안다’인데, 동사 어근끼리의 합성이 가능했던 중세국어 시기의 조어법을 보여 주고 있다.

(28)<月子 제조 판매 마담 소프로니!>라고 써있다. 얼업시 한번은 다라
날득히 응덩이를 움직이엿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고 역개에다가 힘
을 주고 마음을 도사렸다. (월)

‘정신없이’나 ‘얼이 빠져서’ 정도가 자연스럽다.

(29)여섯 접이 되여야 잡수실 수 잇습니다. (도)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인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한편 속어 표현에 가까운 한자 어휘들이 적잖게 발견된다. 완전한 언문일
치는 어휘 사용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그러나 徒勞이엿다. (상:26쪽)

(31)무슨 理由가 거괴 잇섯는지 그가 급히 저에게 作別을 쏘할 때 그의
입에서 뜻없는 듯한 속새긴지 그러치 안흐면 물결의 속새긴지 異狀
한 低音의 말소리가 <당신이 이기섯습니다-- 해가 올라와서 한 時
間 後에 -- 우리는 만납시다--그렵시다!> 속새기는 것을 나는 其然
가 未然가 하게 들엇다. (상:28쪽)

현재 쓰이고 있는 ‘긴가민가하다’의 원형으로 보인다.

(32)하나님이시여, 이래두 男便은 저를 입부다고 生覺하도록.해
줍소사. (월)

‘생각’이라는 단어는 고유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33)독자 제군은 이것에 압서서의 된 일을 임의 아르섯지마는 당시의
나로서는 아모런 손 델 곳이 업슴으로 제백사가 모다 암중모색이엇
다. (백:118쪽)

각각 ‘諸百事’, ‘暗中謀索’이라는 한자어이다. 역시 아직 완전한 구어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4)십상일반이 안이엇다. (백:123쪽)

한자어 고사성어 표현으로 ‘피차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다.

(35)나는 무원려(無遠慮)하게 무려 보앗다. (백:2-82쪽)

구어(口語)에서라면 전혀 쓰였을 것 같지 않은 어휘이다.

(36)나는 아리따운 처녀를 생금해 왓네. (백:2-84쪽)

‘생포하다’가 자연스럽다.

(37)그 뒤에 나는 사탕을 재배하여 불수년에 상당하게 재산을 이루었읍니다. (로:29쪽)

역시 지나친 문어적 표현이다.

다음으로 1음절 한자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1음절 한자어는 대체로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 시기의 번역문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38)넓은 마당의 큰 時計는 伊太利의 다섯時를 報하였다. (상:26쪽)

역시 현재는 잘 안 쓰이는 단어이다. ‘알려 주다’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39)君은 나와 및 나의 僕 以外에, 이 神聖한 奧院에 들어오라는 許諾을 바든 唯一의 人間이다. (상:31쪽)

‘중복’(하인)처럼 2음절로 써야 자연스럽다.

(40) 「원팔라- 팔십칠센트쓰」 그 中에 두 六十센트쓰는 浬돈을 攄거모아
서 합한 額이다. (월)

역시 1음절 한자어로서 국어에서 성립하지 않는 단어이다. ‘금액’ 정도가
 좋을 것이다.

(41) 나는 저가 輕함과 儼함을 뒤섞어서 찬찬히 이악이하는 저의 가슴속
에 어떤 混亂과 戰慄과 신경적 激情이 원인을 모를대서 일어나서
 숨은 것가타야 무시무시하였다. (상:31쪽)

각각 ‘경박함’. ‘엄숙함’ 처럼 써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42) 공은 뺨 칼을 능히 들고 급하고도 맹렬하게 거러가서 자취를 감추
려는 그 괴물 갖가히 삼사척의 내에 드러갔다. (적:51쪽)

한자어 ‘내’보다는 고유어 ‘안’이 좋다. 같은 1음절이라도 한자어는 국어에
서 단어로 성립하지 않지만 고유어는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의 예는 신소설 시대의 변안 소설에서 나타났던 어휘들이다.

(43) 차차 양식과 과자와 밀떡과 조총과 육혈포와 화약 등물을 의복에다
 싸서 들어본즉,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라. (로:30쪽)

‘조총’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쓰던 구식 총이고 ‘육혈포’는 탄약 장전통이 6개의 구멍을 가진 권총이다. 아마도 소총과 권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유어 어휘

여기서는 번역문에 나타난 고유어 어휘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시기만 해도 우수한 표현력을 가진 상당수의 고유어 어휘들이 보인다.

(44)紗帽布는 버슨 듯한 그의 肉體를 겨우 살뽀하게 쌌다. (상:27쪽)

현대에는 잘 안 쓰이는 어휘로서 ‘(실로)짜거나 엮은 것이 얇거나 성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45)생각할 틈도 업시 격구로 運河 가운데 뛰어들어서 숨바꿈질을 했다. (상:27쪽)

‘자맥질’의 고유어이다.

(46)한 푼 두 푼 냄기고 가가(가게) 사람들에게는 입박게는 내지 안아도 저런 졸택이 마나님 바라 허는 눈치툭을 먹어가면서 至毒하게

모흔 돈이다. (월)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유어인데(후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임), 그 우수한 감각적 표현력은 현대에 살려도 좋을 것이다. 그 뜻은 각각 ‘지위가 변변치 못하거나 규모가 크지 못하고 자질구레한 사람(현대 국어 표준어는 졸때기임)’과 ‘눈치로 주는 욕’이다.

(47)무엇을 사서 드리고 무엇이 보기에 홀륭하고 맵자하고 쓸모잇슬가!
(월)

뜻은 ‘모양이 제격에 어울려 맵시가 있다.’이다.

(48)이런 놈이야 대관절 怪狀스럽고 야살시럽지 여러분 (월)

‘알망곳고 잔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대단히 감각적인 어휘이다.

(49)그란즉 그 자는 세상에도 조롱적의 낫작을 해 가지고 이러케 씨까스르다. (백:120쪽)

‘남을 추켰다 낫켰다 비위 틀리게 놀리다’라는 뜻을 가진 현대 국어 ‘쓸까스르다’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이 시기 번역문의 어휘 사용이 비교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50)그러케 느신하게 기다릴 수가 잇는가? (백:127쪽)

현재는 ‘느긋하다’의 어형이 쓰인다.

(51)남새는 흐벅저도 숲과 냇킨은 얹팍하다는 집이다. (순:260쪽)

‘탐스럽게 두툼하고 푸짐하다’는 뜻의 고유어이다.

4. 문화적 차이

여기서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2)僧正 헨리 킹이 그 妻의 臨終에 외인(외운) 詠詞. (상:25쪽)

위 (52)의 밑줄 그은 어휘는 ‘수도원의 우두머리’ 정도의 뜻인데, 불교 등에서 사용되는 동양문화권의 슬어이다. 이러한 번역어를 통해서 외국 문화를 우리 문화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번역자들이 겪었을 고민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53)이런 살림사리로야 매일반이겠지만 짐에게 설빔을 사드리랴도 겨우

원딸라 팔십칠센트쓰. (월)

우리의 풍습이 질게 배인 어휘로 표현되어 있다. 어휘에 대한 친밀감은 분명히 깊어졌지만, 작품 전체가 간직하고 있는 서구적 분위기(애초에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명절이다)가 적잖게 손상되고 있다.

(54)별 수 업시 小學校 作亂軍 道승님의 대가리뺨이 되었다. (월)

역시 우리 문화권에 맞는 어휘를 쓰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55)코니! 아일랜드의 여사당패 갖다고 할 걸. (월)

위 (55)의 밑줄 그은 어휘에는 우리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어휘 의미 외적인 뉘앙스가 질게 배여 있어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6)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쓰의 전날밤이 아니우? (월)

크리스마스 '이브' 대신 '전날밤'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기독교 문화권에 생소한 당시의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번역자의 배려로 보인다.

(57)마누라 이걸 끌러바(봐) 보면 내가 처음 얼이 빠진 모양으로 서서

잇든 까닭을 알 수가 잇슬테니. (월)

지극히 한국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원뜻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아내에 대한 폄하(貶下)의 어감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양 문화권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작품이 지닌 횡적인 인간 관계와 사랑이라는 분위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 (55)와 마찬가지로 역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마음가지(마음까지) 가벼운 동모(동무) 천여명을 자귀 압해 불너
그 사람들과 함께 성갓치 싸아둔 자귀의 크다란 절속으로 몸을 감
추었다. (적:45쪽)

원문을 존중하면 ‘수도원’이나 (대체로 어느 종교에나 쓰일 수 있는) ‘사원’ 정도가 될 것이다. 위 (58)의 밑줄 그은 ‘절’은 특히 불교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이다.

(59)이 절집은 넓고도 굉장한 건물이요 공의 별나고도 장엄한 취미로서
지은 것이었다. (적:46쪽)

위 (58)과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60)나는 그 집의 훌륭한 청직이에게 인도를 바더서 호화로운 방안으로

드러갔다. (백:113쪽)

동일한 봉건제도라도 그 성격이 다르듯이 서양과 우리의 가정은 그 구성원과 조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먼저 번역 태도(예컨대 변안으로 할 것인가, 번역으로 할 것인가 따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61)양자(대렬사위)라는 지위를시다. (백:2-88쪽)

원문의 son-of-law를 ‘양자’로 직역한 다음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렬사위’라는 뜻을 괄호 안에 보충해 주고 있다.

(62)아이구 저 至極히 莊嚴한 長安 서울은 인제는 재가 되엇겠지우.
(양)

‘장안’이 당(唐)의 수도임을 독자에게 알려 주려고 ‘서울’이라는 단어를 동격처럼 보충해 주었다.

(63)우리가 여름달 반 가티 뵈니? (도)

국어의 어휘로 완전히 바뀌어서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64)이 냥반을 내여 쫓게! (곰)

(65)나린님! 마나님이 저러 하시니 가 주십시오. (곰)

위 (64)와 (65)의 밑줄 그은 어휘들은 신분제 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어휘이다.

(66)무네 부인의 젊은 손님들은 하숙비로 일주일에 칠원오십전을 지불하였다. (하:67쪽)

우리의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친숙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당시의 양쪽 화폐의 환율(‘7달러 50센트’와 ‘7원 50전’)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7)식탁 우으로 나타난 상반신이 급사의 의심을 살 염녀는 결코 없다. (순:260쪽)

식당의 분위기를 살리려면 차라리 외래어로 표기해 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번역어는 오히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

(68)허나 쏘피가 카페에 발을 들여놓자 급사두목의 눈초리는 그 찢어진 바지와 떠러진 구두를 보고야 말했다.(순:260쪽)

원문 ‘manager’의 번역어인데 역시 위 (67)과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은 ‘지배인’으로 쓰인다.

(69)그 뒤에 나는 파톤 夫人과 結婚하게 되어 그가 가져온 돈 四千兩을 手中에 너케 되었습니다. (소:37쪽)

위 (69)의 밑줄 그은 어휘 ‘냥’은 어떤 특정시대 특정 화폐 단위로 인식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화폐의 단위로 인식된다. 마치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통용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 (66)에서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70)원 넨장할. (도)

육도 해당 언어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양쪽 언어에서 비슷한 내포 의미를 갖는 육을 번역어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위 (70)의 번역은 문맥에서 그다지 어그러지지 않으므로 비교적 성공적인 어휘 선택으로 보인다.

5. 어휘 용법의 변화

앞서도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지만, 여기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어휘 용법(내포 의미, 지시 범위 등)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71)마음가지(마음까지) 가벼운 동모(동무) 천여명을 자괴 압혜 불너 그 사람들과 함께 성갓치 싸아둔 자괴의 크다란 절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적:45쪽)

(72)모진 바람도 없고 뒤따르는 순사도 없이 꼬박꼬박 주는 밥과 잠자리와 마음 맞는 동무들과 석달 동안을 지낸다는 것은 소피가 응당 바랄만한 것일 것이다.:(순:259쪽)

위 (71)과 (72)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이 어휘가 이데올로기에 채색되기 이전에는 별다른 저항없이 '친구'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73)그것은 밤이 점점 깊어가고 피 물드린 창경으로는 더욱 붉은 불빛이 흘러오는 까닭이다. (적:49쪽)

동일한 문맥에서 지금은 '까닭' 대신 '때문'이 쓰인다. 원문의 reason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대응에서 생긴 결과이든지, 아니면 '까닭'의 적용 범위가 현대보다 더 넓었던 관계로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

(74)그때 그 물너가든 놈은 베르벳트 담요 깔린 방 한쪽 구석에 도달하자 돌연이 방향을 변해서 따라가는 공에게 대항하였다. (적:51쪽)

'방향을 변화시킨다/ 바꾼다'로 하든지, '방향이 바뀌어서'로 해야 할 것이다. 동사 '변하다'가 지배하는 격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75)오후의 립회가 끝나면 반공일은 자유의 몸이엿슴으로 나는 조고만 뽀트에 돛을 달고 항구 안을 즈어 도라단이는 것이 한 습관이 되엇

섯다. (백:112쪽)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다. 일정한 시대에만 쓰이던 어휘는 거꾸로 그 어휘가 등장하는 글의 시대를 추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76)「아니 그 냥반의 가족도 안 계신걸요. 양행(洋行)한 지가 벌써 대여섯 달 된답니다.」 (백:117쪽)

위 (76)의 밑줄 그은 어휘는 ‘구미, 서양으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고 사전에만 올라 있다. 당시가 서양 문물의 도입이 성시를 이루던 개화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어휘가 널리 쓰였을 사회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77)또 만일 내가 이 지전을 엮던 은행에 예금하든지 혹은 연당국(전당포)에 맞기더라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백:118쪽)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78)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에 갖고 싶은 호사품을 쓰고 남도록 사가지고 본영을 <하노파-정>(町)의 상동 호텔에다 진을 쳤다. (백:122쪽)

당시 이미 일본어식 명칭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영문학자가 영어 원전에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본어 번역의 중역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79)그러치만 내가 갓티 가서 관계치 안을가요? (백:2-82쪽)

현대 어법으로는 ‘괜찮을까요?’의 뜻이다.

(80)대단한 관계가 되겠지요. (백:2-82쪽)

현대의 어법으로는 ‘중요하다’의 뜻이다. 원문의 관용 표현을 직역한 결과로 보인다.

(81)그러치 國家는 쏘혀 이런 놈들 까닭에 결사단이 나고 말하나. (양)

(82)長安의 서울과 祖上의 祠堂도 이놈들 까닭에 망거지고 말하나.
(양)

위 (73)의 경우처럼 현대 국어의 어법으로는 ‘때문에’인데, 위 (81)과 (82)는 원문이 중국어이므로 혹시 구결 번역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83)그 사람이 싸움을 일으킨 것은 소현 나를 僞해 그런 게야. (양)

위 (83)의 밑줄 그은 어휘는 현대 국어에서 부정(否定)의 서술어와만 호응을 한다.

(84)이 愉快는 지금까지 소혀 맛보지 못한 것이다. (양)

여기서는 ‘전혀’가 현대 국어의 용법과 동일하게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을 하고 있다.

(85)바로 지금 말씀한 것뿐입니다. (도)

‘말씀’이 현대 국어와 달리 평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86)선장 이하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간독하게 대접하고 돈도 조금 받지 아니하며 나의 배와 주리를 달라 하는지라. (로:29쪽)

‘조금’ 대신 ‘전혀’가 쓰여야 자연스럽다.

(87)그러나 學費가 넉넉치 못했음으로 할수없이 當時 倫敦의 有名한 外科醫 페쯔氏의 晝生이 되어 四年間 지났습니다. (소:37쪽)

‘인턴’이나 ‘조수’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위 (87)의 번역어는

너무 시대에 뒤진 느낌이 든다.

(88)그래서 다만 불래야 반듯이 누은양 하늘을 우렐어 볼 뿐입니다.
(소:38쪽)

현대 국어로는 '기껏'이 적당하다.

(89)높이 사척쫘 되는 문으로 나를 밀어 넣엇는데 누은 낯 좌우로 눈짓
하여 살펴버니 땅에서 여섯 치 가량 높은 곳에 조고마한 창들이 만
히 달려 잇엇습니다. (소:39쪽)

현대 국어로는 '채'가 자연스럽다.

6. 호칭어

여기서는 호칭어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90)쨌-쓰페일링감영 부인 卽 앓가 紹介한 페일러-넉에게 오-짐-하고
달너드러 끼어앵긴다. (월)

영어 원문의 단어 Mr.의 번역어인데 오히려 없는 편이 자연스럽다.

(91)폐일러-는 열窓 옆을 훌쩍 떠나서 거울 압헤 섰다. (월)

앞서 본 (90)과 달리 '님'이 생략되어 있다.

(92)공의 취미는 별스러웠다. (적:48쪽)

인칭대명사를 호칭으로 번역하여 호칭 표현이 발달한 국어의 어법에 맞추고자 했다.

7. 기타

(93)「수구렁을 끼쳐서 미안하지만 괴여히 좀 엇더케 변통해 보구려.»
(백:115쪽)

현대 국어의 '수고로움' 비슷한 의미로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다. 혹시 다른 어휘의 방언형인지도 모른다.

(94)그리고는 나를 경배하는 것처럼 문밖까지 바양을 나왔다. (백:116쪽)

'배웅'의 방언으로 보인다.

(95)그리고 내 치마에 키스하얏지. (양)

이 어휘는 이 시기에 이미 다른 고유어 어휘(‘입맞추다’ 등)가 감당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의미 영역(서구적인 연애의 분위기가 담긴)을 확보하고 있다.

(96)즐거움이 가슴에 넘치는 것 같다. (양)

1930년대에 이미 ‘것 같다’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97)그건 띠너(저녁 정식)예요. (도)

음식 관련 어휘도 문화권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문에 나타난 양식(洋食)이 간직한 분위기를 살리면서 그 뜻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하여 괄호 안에 설명을 넣어 주고 있다.

(98)그는 설흔 사오세 되었다. (하:69쪽)

고유어 ‘설흔’과 한자어 ‘사오’가 같이 쓰여서 비문(非文)이 되어 있다.

(99)그는 <보았다> 할 것을 <보았더> 하고 <알엇드라면> 할 것을 <알
넛들아면> 이라고 하였다. (하:70쪽)

위 (99)의 예문은 화자의 특이한 말투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방언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방언차로 인한 개인의 말투를 드러내어 옮길 때는 원문의 말투에서 핵심적인 특징이 어떤 요소인가(즉 억양따위의 발음차이인지, 문법 형태의 실현 차이인지, 표준어와 방언의 어휘 차이인지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종결어미와 ㄴ 첨가 여부 등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다.

(100)썩피의 몸을 빙글 돌려 아모 말 없이 포도 우에 벼락같이 내뿌러
쳐 버린다. (순:260쪽)

(101)왼편 볼때기가 단단한 페브멘트 우에 부닥쳤다. (순:260쪽)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각각 한자어와 외래어로 처리하여 동일 어형
의 반복적 사용에서 오는 지루함을 피하고 변화를 주고 있다.

III. 표기 체계

본절에서는 1920-30년대 번역문의 대략적인 표기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일반 국어 문장 표기 양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도 이 시기의 전반적인 표기 양상과 번역문에 나타나는 표기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반적 양상

이 시기의 번역문은 다른 일반 문장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작품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들을 보자.

(1)그래서 그 놈은 것침업시 공의 안방에서 서너자밧게 안 되는 곳으로 드러갓다. (적:51쪽)

(cf)그 놈을 포박하기 전에 그 놈은 거침업시 거러갓다. (적:51쪽)

심지어 같은 작품의 같은 쪽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맞춤법에 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몇 예를 더 보이기로 한다.

(2)여관으로 갖다 드려라. 다른 손님에게는 기다리게 하고. 려관 번지를 써 노코서... (백:122쪽)

(3)나는 이분 동안에 그 여자에게 련정을 보내고 그 녀자도 나를 밍지 안케 생각하는 모양이엇다.(백:125쪽)

위 (2)-(3)의 예문은 동일한 문장에서 단어의 발음에 관련된 것들이다. 즉 어두의 [i] 모음 앞 ㄴ/ㄹ 탈락 규칙의 적용 여부에 따른 교체형이 각각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운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서북 방언형이 표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표기자가 2인 이상이 아닌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가정이다. 이들에 비해서 아래 (4)의 예문은 어형 자체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4)저이들만 잘 안 것갓티 줏어늘어 노코 공연이스리 딱딱하게 굴어. 괘니스리 한데 봉변을 할여고. (도)

이러한 표기의 혼란상으로 인하여 현대 국어와 다른 모습을 갖는 다음과 같은 예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내 반듯이 空虛한 溪間에서 그대와 상봉하리라 (상:25쪽)

현대 국어에서는 ‘반듯하다’에서 파생된 부사로 ‘가지런히’라는 뜻을 갖는 ‘반듯이’와 ‘꼭’이라는 뜻을 갖는 ‘반드시’가 구별되어 쓰이므로 이 시기의 문장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위 (5)는 현대 국어라면 ‘반드시’로 표기되어야 한다.

(6)그런즉 이 놈도 또 다른 놈을 턱으로 가르치고 나에게는 아모런 대답도 업다.(백:11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가르키다’와 ‘가르치다’가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 현대 국어라면 ‘가리키다’로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이 시기의 철자법은 아래 (7)에서 보듯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기보다 어떤 공식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일종의 기계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7)그러나 원딸라 -하고 팔십칠센트쓰이라는 額은 엄연히 增減이 업다.
(월)

소리나는 대로 적었다면 조모음 [이]는 표기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외래어의 표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8)『원딸라- 팔십칠센트쓰』 그 中에 두 六十센트쓰는 捰돈을 글거모아서 합한 額이다. (월)

밑줄 그은 부분의 마지막 음절에서 영어의 음소에 국어의 자모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철자식 외래어 표기법의 양상을 볼 수 있다.

2. 기타

(9) 뿔한 運命을 바든(받은) 神秘한 사람이어! (상:25쪽)

(10) 네 자신의 靑春의 불꽃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어! (상:25쪽)

느낌표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번역문 전체의 긴장감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외래어나 의성어, 의태어의 표기에 사용된 특이한 부호의 존재를 볼 수 있다.

(11) 일곱時에 嘉俳茶가 끌고 『프라이관』이 風爐 우에서 달어서 저녁밥 채비가 거의 되었다. (월)

위 (11)의 밑줄 그은 부분에서 외래어 표시에 사용된 꺾쇠표를 볼 수 있다.

(12) 『붉은 죽음』이 오래동안 그 나라를 황폐식혔다. (적:45쪽)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꺾쇠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외래어와 대화문에도 동일한 표시가 되어 있다. 문장 부호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고 하겠다.

(13)채색한 창경으로 불쌀을 쏘아내며 방을 아주 반짝V하게 빅초엿다.(적:47쪽)

위 (13)에 나타나는 표시는 의태어와 의성어의 표현에 쓰이는 독특한 부호이다. 앞 단어(정확히 말하면 어근에 해당됨)의 반복을 나타내는 부호로 보인다. (*원문은 세로쓰기이므로 이 부호도 세로로 세워져 있음)

(14)振子는 둔하고 무겁고 단조한 소리로 똑닥V하면서 압뒤로 흔들고 잇섯다.(적:47쪽)

위 (14)의 부호는 의성어의 반복에 사용되고 있다.

(15)방 일곱개에는 사실상 꿈의 군중이 압뒤로 가만V 거러다녔다.
(적:48쪽)

위 (15)의 부호는 의태어의 반복에 사용되고 있다.

(16)완전--무결이란 것은 이런 것이 안이갯슴닛가? (백:121쪽)

위 (16)에서는 형용사 '완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붙임줄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효과까지 고려한 표기로 보인다.

다음에는 부호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17)사건은 전혀 실업은 작난이었으나 그러케 생각해 보면 방심할 수는 업는 것과 갓흔 엇잔지 무서운 듯한 다시 말하면 비극과 갓흔 반면 이 잇섯다.(백:122쪽)

위 (17)의 표기로 미루어 이 시기에 ‘사건’의 둘째 음절은 이미 경음화를 완료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18)모진 바람도 없고 뒤따르는 순사도 없이 꼬박꼬박 주는 밥과 잠자리와 마음 맞는 동무들과 석달 동안을 지낸다는 것은 쏘피가 응당 바랄만한 것일 것이다.(순:259쪽)

위 (18)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겹받침 표기가 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1933년에 제정된 맞춤법 통일안의 영향으로 보인다.

(19)무슨 理由가 거기 잇섯는지 그가 급히 저에게 作別을 告할 때 그의 입에서 뜻없는 듯한 속새긴지 그러치 안흐면 물결의 속새긴지 異狀한 低音의 말소리가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해가 올라와서 한 時間 後에 -- 우리는 만납시다--그럽시다!> 속새기는 것을 나는 其然가 未然가 하게 들엇다. (상:28쪽)

위 (19)의 밑줄 그은 부분은 ‘속삭임’의 誤識인 듯하다.

IV. 문장 부호

본절에서는 1920-30년대의 번역문에 사용된 문장 부호의 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기로 한다.

1. 줄표 (--- --)

일반적인 문장보다 번역문에서는 특히 줄표가 많이 사용된다. 이 줄표의 기능은 흔히 삽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수식이나 부연 설명을 담당하고 있다. 영어 등의 인구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국어는 어순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 줄표의 번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가 서구 문화에 대한 접근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련된 번역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번역문에서도 줄표가 그대로 원문과 같은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서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

(1)--그대가 現在 있는 것 갖지는 안코, 이를테면 悽涼한 谿間과 그림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대가 잊섯슬 듯한, 卽 저 몽롱한 幻影의 市--별의 사랑을 밧는 極樂 아라지오式 宮殿의 넓은 門窓들이 沈默하는 바다의 이상한 모든 秘密의 우에, 또 그대가, 곱흔, 쓴 意味의 눈끼를(눈길을) 던지고 잇든 그대 自身의 베니스에서, 莊嚴한 冥想의 生涯를 보내고 잇든 그대의 모양이! (상:25쪽)

원문을 보면 줄표로 둘러싸인 부분은 궁전을 수식하고 있는 어구인데 어

순을 국어의 수식 과정에 맞게 앞으로 바꾸었으면서도 줄표를 그대로 놓아 두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군더더기가 되어 있다. 위 (1)에서는 그냥 줄표를 삭제하는 편이 간결하여 읽기에 좋을 것으로 보인다.

(2)내일은 크리스마스의 당일이라고 하는데 원딸라 -팔십칠센트쓰밧게 는 사랑하는 짐-男便-에게 선물을 사드릴 돈이 업다. (월)

위 (2)에서 줄표의 역할은 앞 단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줄표를 없애고 어순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男便 집에게'처럼 동격으로 처리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化粧은 옷지 도얏던지 원바탕으로만 보아 달나는 물건--물건이나 . 사람이나 원래 조흔 것은 그러컷다--이것이야말누 그 金時計와는 부끄럽지 안은 짝이다. (월)

여기서 줄표로 둘러싸인 부분은 앞 단어 물건에 대한 보충 설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다. '물건이 나 사람이나 원래 좋은 것은 다 그렇겠지만, 화장은 상관하지 말고 본바탕 으로만 보아 달라는 이 물건이야말로 그 金時計와는 부끄럽지 않을 짝이다.'

(4)다섯재는 흰 빗흐로써--여섯재는 가락지긱(꽃) 빗흐로. (적:47쪽)

위 (4)에 나타난 줄표의 원래 용법과 다르게 사용되어 있다. 수식도 아니고 예시나 보충 설명도 아닌 단순한 계기적 순서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줄표를 없애고 쉼표 정도로 대치시켜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5) 그리고 이것들이 --꿈--방의 채색에 빗초이면서 전후좌우로 몸부림치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을 그들의 발자욱 소리처럼 생각되게 하였다.(적:48쪽)

이 삼입구의 역할은 문맥으로 보아 다음에 오는 단어 ‘방’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번역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6) 푸른 방에서 자색 방으로 자색 방을 지내서 초록색 방으로 --~~록색 방~~을 지내서 --~~굴빛 방으로--~~ 이곳을 지내서 --~~또~~ 초월 곳으로 그리고는 또 거기서 가락지 꽃빛 방으로 엮든 결정된 행동이 그 놈을 포박하기 전에 그 놈은 거침없이 거러갔다. (적:51쪽)

위 (6)에 나타난 줄표의 용법은 무의미하다. 그냥 줄표를 없애고 쉼표를 적절히 끼워 넣는 편이 자연스럽다. ‘... 방을 지나, ... 방을 지나, ... 방을 지나’ 정도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7) 손으로 바더보는 신문이란 신문 --영(英)소(蘇)애(愛) 삼국 말의--에는 반드시 <지전 죽기의 신사>에 관한 글과 아울너 그의 최근의 언

행이 실녀 잇다.(백:123쪽)

위 (7)에서는 줄표를 사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어순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영, 소, 애 삼국 말로 된 손으로 받아 보는 신문이란 신문에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8)무엇을 엇든지 이러버리든지--어느 편이던지 관계치 안으나--그것이 업시는 그들은 결코 내기를 하지 안는다.(백:2-81쪽)

위 (8)에 나타난 줄표의 용법은 보충 설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어순을 바꾸어 주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편이든 상관은 없지만 무엇을 얻든지 잃어 버리든지 하는 일이 없이는 그들은 결코 내기를 하지 않는다.’

2. 쉼표 (,)

쉼표의 용법은 대체로 현대와 동일하지만, 이 시기의 번역문에는 지나치게 남용되어 있다. 1920년대가 외국어의 번역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서구 언어의 구조에 익숙치 못하여 어순 등의 차이를 무리하게 쉼표를 통해서 용해시키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쉼표를 마침표 대신으로 사용한 용법도 목격된다.

(9)--그대가 現在 잇는 것 갖지는 안코, 이를테면 淒涼한 谿間과 그림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대가 잇섯을 듯한, 卽 저 몽롱한 幻影의 市--별의 사랑을 맞는 極樂 아라지오式 宮殿의 넓은 門窓들이 沈默하는 바다의 이상한 모든 秘密의 우에, 또 그대가, 김흔, 쓴 意味의 눈끼를(눈길을) 던지고 잇든 그대 自身の 베니스에서, 莊嚴한 冥想의 生涯를 보내고 잇든 그대의 모양이! (상:25쪽)

위 (9)를 한번 훑어 보면 이 시기의 번역문에 쉼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상당수의 쉼표가 생략되어도 전혀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다.

(10)나는 거듭 말한다, 거꾸는 그대가 잇섯을 듯하다. (상:25쪽)

위 (10)에서는 쉼표가 마침표 대신 사용되고 있다. 원문이 대화문이므로 인용문과 전달 동사의 관련성을 보전하기 위한 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해당 위치에 마침표를 사용한 다음에 인용 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을 처리하는 편이 낫다.

(11)그러나 五六월 더위의 밤중은 무르녹이는 듯이 더웁고 怒한 듯이 고요했다. (상:27쪽)

위 (11)은 ‘五’와 ‘六’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의미가 안 통한다. 가운데 쉼표가 있어야 한다.

3. 기타

(12)나는 이 逢遭의 때를 極히 紛亂한 記憶으로부터 생각해 낸다__그러나 나는 잘 記憶하고 있다__아아! (상:26쪽)

위 (12)에는 마침표가 두 군데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의 글에서 흔히 목격되는데, 표기법의 혼란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3)大理石의 얼굴의 蒼白함이__大理石의 가슴의 動搖가__大理石의 발의 淨함이, 突然히 制御키 어려운 眞紅의 민물을 일면에 들쓰는 것을 우리는 본다. (상:28쪽)

위 (13)의 빈 자리에는 쉼표가 있어야 복수 주어의 올바른 나타낼 수 있다.

(14)저가튼 놈이야 멀-D자 한 자만해도 족합니다. (월)

위 (14)에서는 문맥으로 보아 인용 부호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5)썸-쓰페일링감영 부인 卽 앓가 紹介한 때일러-님에게 오-짐-하고 달너드러 끼어앵긴다. (월)

위 (15)에서도 (14)와 마찬가지로 문장 가운데 인용 부호가 빠져 있다.

(16)무엇을 사서 드리고 무엇이 보기에 훌륭하고 맵자하고 쓸모있을까!
(월)

전체 문맥상으로 보아 아내의 생각인데, 생각을 나타내는 인용 부호(작은 따옴표)가 빠져 있다. 적절한 인용 부호를 넣어서 대화나 지문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집필 : 김정우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번역 문체의 역사적 연구

1994년 6월 25일 인쇄

199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안 병 희

발행처: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전화 779-4812~8

팩스 779-4819

인쇄: 계문사

전화 736-5256

梁 明 姬 (비매품)